

변화를 거둬들이는 학교, 내줄리는 학생들!

2013, 학생인권은 여전히 목마르다!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 자료집 목차 ■

I. 조사의 목적	1p
II. 조사 개요	1p
III. 조사 결과 요약	3p
IV. 조사 결과 분석	
1. 학생인권 실태	4p
2.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30p
3.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 등이 학생인권 향상에 미치는 영향	44p
V. 조사 결과의 시사점	53p
참고. 설문지	54p

I. 조사의 목적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인권.교육.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된 만큼 실제 학교현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인권정책을 추진할 경우 학생들의 인권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학생들의 차이에 주목하여 학교급별, 학교의 설립주체, 학생의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등에 따라 인권침해 경험의 어떻게 갈리는지, 학생인권 침해로 정당화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했다.

무엇보다 인권침해의 유형별 조사를 넘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활 의식을 함께 파악했다는 점,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별점제의 운영 현황과 폐해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I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 집 단	전국 초.중.고 학생
조사기간	2013년 8월 26일~ 9월 4일
응답자수	2921명(총 81개교)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임의 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pm 1.8\%$

2. 분석도구 : SASW Statistics 18

3. 표본의 특성

※ 전체 빈도와 집단별 합계의 오차는 무응답 수치임.

		빈도	%
전체		2921	100%
성별	여자	1364	47.5%
	남자	1507	52.4%
	()	3	.1%
집단 합계		2874	100%
학교	초등	290	10.1%
	중학교	985	34.2%
	인문고	976	33.9%
	특성화고	551	19.1%
	특목고	77	2.7%
집단 합계		2879	100%
사는곳	서울	620	21.4%
	인천	200	6.9%
	경기	356	12.3%
	대전/충청권	406	14.0%
	광주	123	4.2%
	호남권	340	11.7%
	대구/경북권	224	7.7%
	부산/울산/경남	472	16.3%
	강원	91	3.1%
	제주	66	2.3%
집단 합계		2898	100%
설립별	국공립	2500	85.6%
	사립	421	14.4%
집단 합계		2921	100%
혁신학교 (서울, 경기, 광주 지역)	일반학교	2473	84.7%
	혁신학교	448	15.3%
집단 합계		2921	100%

Ⅲ. 조사 결과 요약

-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와 서울에서 연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2013년 7월에는 전북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체벌, 두발.복장단속, 강제 야자.보충, 학생 자치권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학생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위기감은 높은 반면, 학교의 학생에 대한 폭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고 심지어 '무서운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는 '무서운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학원, 가정 가운데 체벌과 언어폭력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곳으로 '학교'를 꼽았다. 학교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학생간폭력('학교폭력')만을 이야기하는 이중성에 대해 성찰해보게 되는 지점이다.
-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 사이에는 학생의 인권과 학교생활 수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여부에 따른 지역간 차이는 학생의 경제수준, 학업성적 수준 등의 다른 변인에 비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덜 경험하고 학교생활이나 교사와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학생의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에서, 학생의 학업성적이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권침해 경험이 많거나 학교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 벌점제는 체벌의 대체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비교육적 효과를 낳는 폐해가 확인되었다.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와 같이 학교가 억압적이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정성을 잃은 차별적, 편파적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수가 절반에 육박했다. 학교의 변화는 더디나 이를 견딜 수 없어하는 학생들의 고통과 외로움은 깊어졌다.
- '두발단속이 성적을 오르게 한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권이 무너진다',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부정적이다'와 같이 학생인권침해를 정당화해온 통념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새로운 답을 내놓았다.

IV. 조사결과 분석

1. 학생인권 실태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학교생활에서 직접 또는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던져 학생인권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1) 체벌과 언어폭력

■ 체벌 경험과 유형

체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물론, 고문방지협약에서는 '고문'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형태의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서도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학교현장에 체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간 폭력은 엄벌하면서 학교가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학교의 이중성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표 1> 언어폭력·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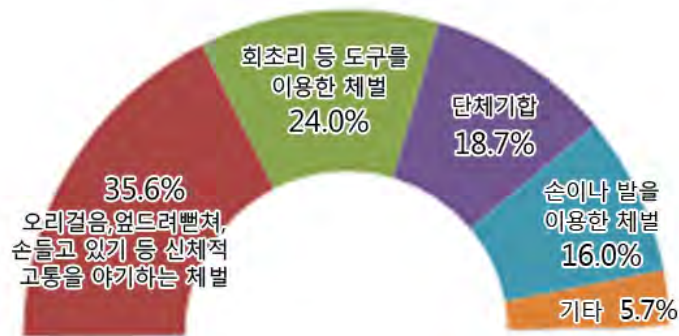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	238 (8.2%)	599 (20.6%)	840 (28.9%)	1228 (42.3%)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체벌	180 (6.2%)	496 (17.0%)	868 (29.8%)	1368 (47.0%)

-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관리자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체벌과 언어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을 묻지 않고 목격 경험도 함께 질문한 이유는, 체벌과 언어폭력이 해당 피해학생에게만 모욕감과 공포심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언어폭력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은 42.3%, 체벌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47.0%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체벌이 "자주 있다"는 응답과 "가끔 있다"는 응답을 합친 것도 전체의 23.2%로, 약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종종 체벌을 경험했다고 한 셈이다.

<표 2> 학교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체벌의 형태 (중복응답)

전체 응답수 합계	3767건(100%)	응답자수(2132명) 대비 비율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1341 (35.6%)	62.9%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	903 (24.0%)	42.4%
단체기합	704 (18.7%)	33.0%
손이나 발을 이용한 체벌	603 (16.0%)	28.3%
기타	216 (5.7%)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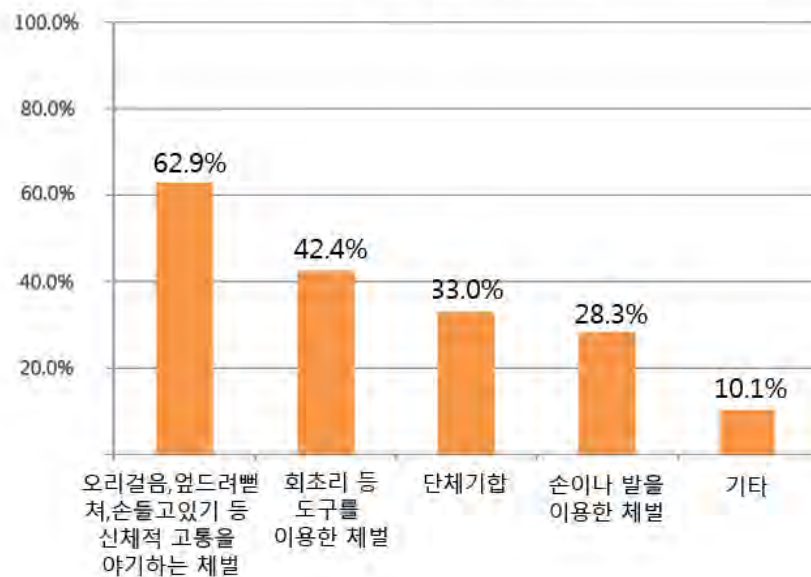
체벌의 유형 (중복응답)



<그림 1>

체벌의 유형 (중복응답)

[응답자수 대비 %]



<그림 2>

- 가장 많은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답한 체벌 유형은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었고, 그 다음은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체벌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학생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단체기합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 응답자 중 손발을 이용한 체벌을 당해본 적 있는 학생은 28.3%,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의 경우도 4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있기 등도 법률에서 금지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기에 가장 빈번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학교급별 체벌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표 합계
학교	초등	3 (1.0%)	22 (7.6%)	46 (15.9%)	218 (75.4%)	290 (100%)
	중학교	42 (4.3%)	140 (14.3%)	296 (30.2%)	501 (51.2%)	985 (100%)
	인문고	54 (5.5%)	188 (19.3%)	329 (33.7%)	404 (41.4%)	976 (100%)
	특성화고	69 (12.5%)	113 (20.5%)	174 (1.6%)	195 (35.4%)	551 (100%)
	특목고	11 (14.3%)	26 (33.8%)	14 (18.2%)	26 (33.8%)	77 (100%)

<표 4> 학교급별 체벌 유형 경험							
			손이나 발을 이용한 체벌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단체기합	기타
학교	초등	응답자수171명 (100%)	38 (22.2%)	37 (21.6%)	98 (57.3%)	64 (37.4%)	29 (17.0%)
		응답수 266건 (100%)	38 (14.3%)	37 (13.9%)	98 (36.8%)	64 (24.1%)	29 (10.9%)
	중학교	응답자수705명 (100%)	192 (27.2%)	299 (42.4%)	409 (58.0%)	231 (32.8%)	67 (9.5%)
		응답수 1198건 (100%)	192 (16.0%)	299 (25.0%)	409 (34.1%)	231 (19.3%)	67 (5.6%)
	인문고	응답자수731명 (100%)	207 (28.3%)	308 (42.1%)	497 (68.0%)	199 (27.2%)	74 (10.1%)
		응답건수1285건 (100%)	207 (16.1%)	308 (24.0%)	497 (38.7%)	199 (15.5%)	74 (5.8%)
	특성화고	응답자수 434명 (100%)	136 (31.3%)	214 (49.3%)	275 (63.4%)	156 (35.9%)	35 (8.1%)
		응답수 816건 (100%)	136 (16.7%)	214 (26.2%)	275 (33.7%)	156 (19.1%)	35 (4.3%)
	특목고	응답자수 70명 (100%)	25 (35.7%)	37 (52.9%)	52 (74.3%)	50 (71.4%)	7 (10.0%)
		응답수 171건 (100%)	25 (14.6%)	37 (21.6%)	52 (30.4%)	50 (29.2%)	7 (4.1%)

- 체벌 경험을 학교급별에 따라 비교 분석해본 결과,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체벌 경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1년간 체벌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75.4%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고 41.4%, 특성화고 35.4%, 특목고 33.8%에 그쳤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와 특목고의 체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체벌 유형에서도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도 었드려뻔쳐, 단체기합은 물론,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 언어폭력의 형태

<표 5>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당하거나 목격한 언어폭력의 형태 (중복응답)		
전체응답수 합계	2455 (100%)	응답자수(1652명) 대비 비율
욕설	941 (38.3%)	57.0%
신체특성, 외모 등을 놀림	402 (16.4%)	24.3%
위협	374 (15.2%)	22.6%
저주나 증오심이 담긴 말	224 (9.1%)	13.6%
부모님 욕하기	222 (9.0%)	13.4%
기타	292 (11.9%)	17.7%

- 언어폭력의 유형별로는 욕설이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를 놀리는 것 16.4%, 위협이 15.2%, 저주나 증오심이 담긴 말이 9.1%, 부모님 욕하기가 9.0%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에는 '너는 안돼', '너 노숙자 될래?' 등이 언급되었다.
- 응답자 중 57.0%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욕설을 들어봤고, 24.3%가 신체특성, 외모 등을 놀리는 말을 들어봤다고 답했다. 학생들 중 다수가 욕설, 차별적 언사 등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체벌.언어폭력의 빈도

<표 6> 학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이루어지는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2번	아주 가끔	합계
316 (13.9%)	426 (18.8%)	217 (9.6%)	224 (9.9%)	1083 (47.8%)	2266 (100%)

-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일어난다고 답한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의 42.3%,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답한 학생도 13.9%에 이르렀다. 전체 표본에 대비해보면 32.8%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체벌.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한 장소

<표 7> 어른들의 체벌/언어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					
		학교	학원	집	합계
전체		1414 (70.8%)	298 (14.9%)	286 14.3%	2921 (100%)
학교	초등	64 (38.3%)	41 (24.6%)	62 (37.1%)	290 (100%)
	중학교	415 (63.7%)	132 (20.3%)	104 (16.0%)	985 (100%)
	인문고	527 (77.5%)	72 (10.6%)	81 (11.9%)	976 (100%)
	특성화고	348 (81.7%)	45 (10.6%)	33 (7.7%)	551 (100%)
	특목고	50 (84.7%)	5 (8.5%)	4 (6.8%)	77 (100%)

설립 별	국공립	1165 (68.7%)	265 (15.6%)	265 (15.6%)	2500 (100%)
	사립	249 (82.2%)	33 (10.9%)	21 (6.9%)	421 (100%)

- 체벌과 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 응답자의 70.8%로 학교를 꼽았다. 공교육의 수행 장소인 학교가 가장 폭력적인 장소로 꼽힌 것이다. 학교급별로 비교 분석해봐도 초·중·고를 막론하고 학교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꼽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단, 초등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체벌과 언어폭력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인권적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벌점제 시행 현황과 폐해

교육부가 체벌의 대안으로 권장, 시행되고 있는 벌점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벌점제의 체벌 대체 효과는 약한 반면, 비교육적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벌점제 도입 현황

<표 8> 벌점제 시행 여부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723 (59.7%)	1165 (40.3%)	2888 (100%)
학교	초등	20 (7.0%)	267 (93.0%)	290 (100%)
	중학교	521 (53.4%)	454 (46.6%)	985 (100%)
	인문고	688 (70.9%)	282 (29.1%)	976 (100%)
	특성화고	408 (74.2%)	142 (25.8%)	551 (100%)
	특목고	74 (96.1%)	3 (3.9%)	77 (100%)

- 벌점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더니 전체의 59.7%가 그렇다고 답했다. 벌점제는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도입·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벌점제의 시행 현황

<표 9> 벌점이 쌓이면 받는 벌 (중복응답)		
전체응답수 합계	2636건(100%)	응답자수(1664명) 대비 비율
기합이나 체벌	365 (13.8%)	21.9%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	288 (10.9%)	17.3%
벌을 결정하는 교사회의가 열림(학생선도위원회)	908 (34.4%)	54.6%
벌을 결정하는 학생회의가 열림(학생자치법정)	384 (14.6%)	23.1%
보호자 상담	439 (16.7%)	26.4%
기타	252 (9.6%)	15.1%

- 벌점이 쌓였을 때 기합이나 체벌을 받는다고 답한 학생이 21.9%로 나타나 학생 통제수단으로서 벌점제와 체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제가 체벌의 대체 수단보다는 벌점제의 보충적 수단으로 체벌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벌점이 쌓인 학생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고 도움을 제공한다고 답한 비율이 17.3%에 불과해, 벌점제가 교육적 역할보다는 단지 학생을 벌주고 통제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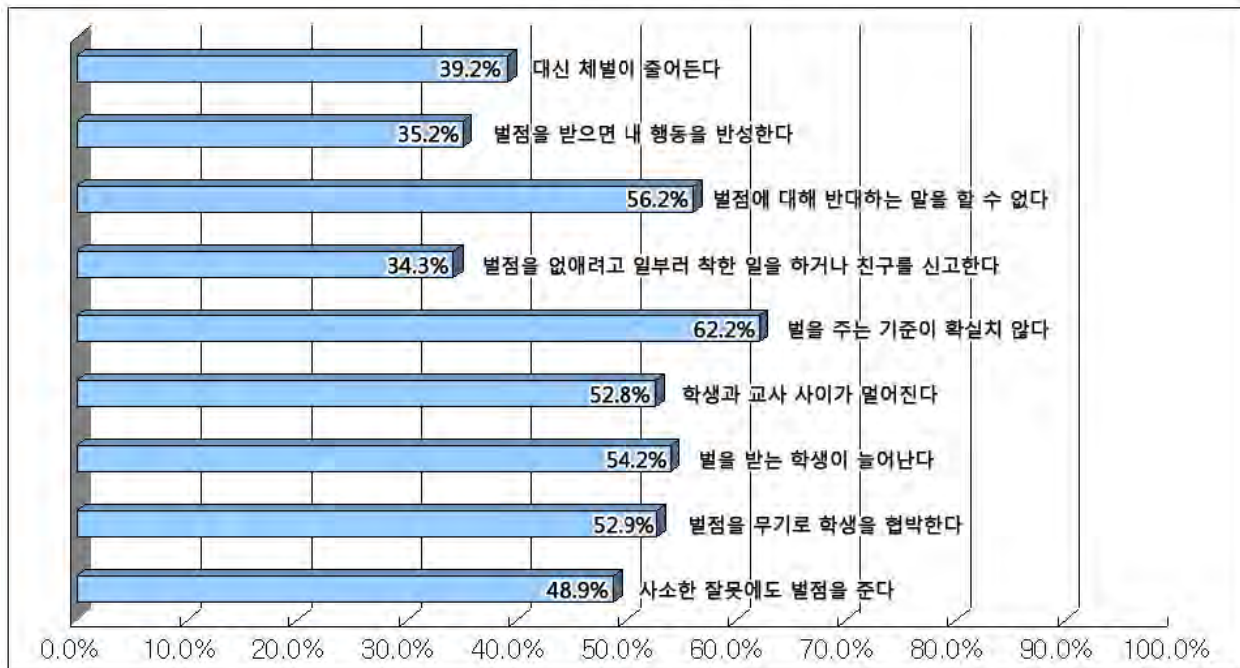
<표 10> 벌점이 쌓여 벌을 받은 경우의 조치			
벌을 받고 나면 벌점이 없어진다	벌을 받고 나면 벌점이 없어지지만 다시 벌점이 쌓이면 더 심한 벌을 받는다	벌을 받아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쌓인다	기타
486 (29.4%)	354 (21.4%)	493 (29.8%)	320 (19.4%)

- 벌점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는 것이 도입 명분이었다. 그러나, 벌점이 쌓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 가중처벌을 당하거나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51.2%에 이르렀다. 이는 벌점제가 학생의 문제행동이 수정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수단이 아니라 학생을 엄벌하고 문제아로 낙인찍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 벌점제에 대한 생각			
	그렇다	아니다	합계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836 (48.9%)	875 (51.1%)	1711 (100%)
대신 체벌이 줄어든다	668 (39.2%)	1037 (60.8%)	1705 (100%)
벌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903 (52.9%)	805 (47.1%)	1708 (100%)
벌을 받는 학생이 늘어난다	926 (54.2%)	782 (45.8%)	1708 (100%)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	902 (52.8%)	807 (47.2%)	1709 (100%)
벌을 주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1059 (62.2%)	644 (37.8%)	1703 (100%)
벌점을 없애려고 일부러 착한 일을 하거나 친구를 신고한다	585 (34.3%)	1119 (65.7%)	1704 (100%)
벌점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다	953 (56.2%)	744 (43.8%)	1697 (100%)
벌점을 받으면 내 행동을 반성한다	601 (35.2%)	1105 (64.8%)	1706 (100%)

- 벌점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벌점제의 폐해는 더 잘 드러난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벌점 기준의 모호성, 학생을 협박하는 도구라는 성격, 벌을 받는 학생 수의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고 답한 학생도 52.8%에 이르러 벌점제가 오히려 교사-학생 관계를 왜곡하는 효과까지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벌점제가 체벌 대체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은 39.2%에 그쳤다. 또한 벌점을 받았을 때의 내 행동을 반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64.8%에 이르러 교육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벌점을 없애려고 일부러 착한 일을 하거나 신고한다는 응답도 34.3%에 이르러 벌점제가 학생의 인성을 파괴하는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벌점제에 대한 생각 ("그렇다"라고 답한 수치)



<그림 3>

<표 12> 벌점을 받으면 내 행동을 반성한다

		그렇다	아니다	합계
학교	초등	15 (75.0%)	5 (25.0%)	20 (100%)
	중학교	237 (45.8%)	280 (54.2%)	517 (100%)
	인문고	164 (24.0%)	518 (76.0%)	682 (100%)
	특성화고	156 (38.6%)	248 (61.4%)	404 (100%)
	특목고	22 (29.7%)	52 (70.3%)	74 (100%)

- 특히 '벌점을 받으면 내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아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벌점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교육적 효과는 반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체벌이나 언어폭력, 벌점을 받게 되는 이유(중복응답)

전체응답수 합계	14042 (100%)	응답자수(2610명) 대비 비율
수업태도 불량	1933 (13.8%)	74.1%
숙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1002 (7.1%)	38.4%
지각이나 결석	1463 (10.4%)	56.1%
두발복장규정 위반	1496 (10.7%)	57.3%
뛰어놀거나 장난을 쳐서	674 (4.8%)	25.8%
성적이 낮아서	135 (1.0%)	5.2%
학생간 다툼, 폭력	1407 (10.0%)	53.9%

음주나 흡연	1344 (9.6%)	51.5%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소지	993 (7.1%)	38.0%
버릇없이 군다	1157 (8.2%)	44.3%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교사 지도 불응)	1666 (11.9%)	63.8%
학교에 대한 저항(학교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행동)	541 (3.9%)	20.7%
별다른 이유없이	231 (1.6%)	8.9%

- 학생들이 체벌이나 벌점 등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태도 불량', '교사 지도 불응', '두발.복장규정 위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 등을 경험한 학생이 20.7%에 이르러 학교가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참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발.복장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체벌 등의 경험률도 57.3%에 이르러 부당한 두발.복장 단속이 폭력을 부르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간 다툼을 이유로 체벌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도 53.9%에 이르러,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도 포함되지 않는 폭력적인 조치로 학생을 대하는 경우도 허다함을 보여준다. '별다른 이유없이'라고 답한 학생도 8.9%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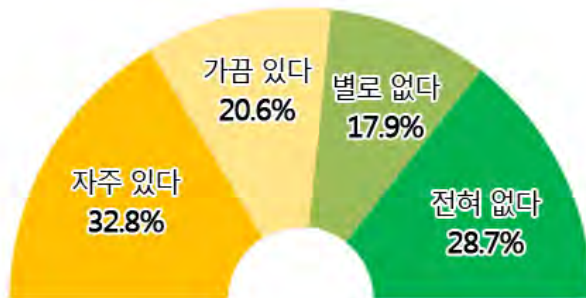
3) 두발.복장 규제

체벌과 함께 학생인권 의제의 대표격인 두발.복장 규제는 학생의 인격권과 개성실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여전히 두발.복장 규제는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두발규제 경험

<표 14> 원하는 머리스타일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955 (32.8%)	599 (20.6%)	521 (17.9%)	836 (28.7%)	2911 (100%)
학교	초등	19 (6.6%)	17 (5.9%)	39 (13.4%)	215 (74.1%)	290 (100%)
	중학교	257 (26.3%)	218 (22.3%)	215 (22.0%)	288 (29.4%)	978 (100%)
	인문고	376 (38.6%)	233 (23.9%)	168 (17.2%)	197 (20.2%)	974 (100%)
	특성화고	269 (48.8%)	112 (20.3%)	82 (14.9%)	88 (16.0%)	551 (100%)
	특목고	26 (33.8%)	13 (16.9%)	9 (11.7%)	29 (37.7%)	77 (100%)

두발규제 빈도



<그림 4>

- 두발 규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53.4%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두발 규제를 경험하는 학생이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두발 규제가 없는 초등을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만 살펴보면, 자주 있다고 답한 비율이 35.8%,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이 22.2%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두발규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길이 규제와 모양·색깔 규제 비교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가 있다	791 (27.4%)	462 (16.0%)	446 (15.5%)	1184 (41.1%)
머리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규제가 있다	1661 (57.7%)	528 (18.3%)	228 (7.9%)	464 (16.1%)

- 두발규제 경험을 좀더 세부적으로 물어보았더니, 머리 길이 규제가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1.1%인 반면,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6.1%에 불과했다.

■ 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표 16> 두발규제에 대한 생각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두발규제가 강화되면 (머리모양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면) 나의 성적이 올라간다	89 (3.1%)	123 (4.3%)	509 (17.7%)	2161 (75.0%)
두발 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737 (25.6%)	586 (20.3%)	615 (21.3%)	944 (32.8%)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모양을 똑같이 정하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1780 (61.8%)	629 (21.8%)	232 (8.1%)	239 (8.3%)

- 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더니, 두발규제의 정당화 논리로 흔히 거론되는 '학업 성적 향상'에 대해 학생들의 92.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발규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있다고 답한 학생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두발규제가 학교생활 스트레스 요인의 주범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가 일률적으로 두발을 규제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83.6%에 이르러 절대 다수의 학생이 두발규제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복장 규제 경험

<표 17>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913 31.40%	619 21.30%	531 18.20%	849 29.20%	2912 (100%)
학교별	초등	16 (5.5%)	24 (8.3%)	36 (12.4%)	214 (73.8%)	290 (100%)
	중학교	227 (23.2%)	227 (23.2%)	223 (22.8%)	303 (30.9%)	985 (100%)
	인문고	380 (39.0%)	228 (23.4%)	169 (17.4%)	197 (20.2%)	976 (100%)
	특성학교	255 (46.4%)	127 (23.1%)	78 (14.2%)	89 (16.2%)	551 (100%)
	특목고	29 (37.7%)	8 (10.4%)	16 (20.8%)	24 (31.2%)	77 (100%)
설립별	국공립	709 (28.50%)	522 (20.90%)	476 (19.10%)	785 (31.50%)	2500 (100%)
	사립	204 (48.60%)	97 (23.10%)	55 (13.10%)	64 (15.20%)	421 (100%)

- 복장 규제의 경우에도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이 52.7%에 이르러 복장단속도 자주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복장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초등을 제외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만 따져보면, 자주 있다고 답한 학생이 34.4%,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22.7%로 57.1%의 학생이 복장 규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차별 경험

학생이 학교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학생이 가진 차이와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공공교육의 장이면서, 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공간이다. 그럼에도 성적, 외모 등에 따른 차별을 학생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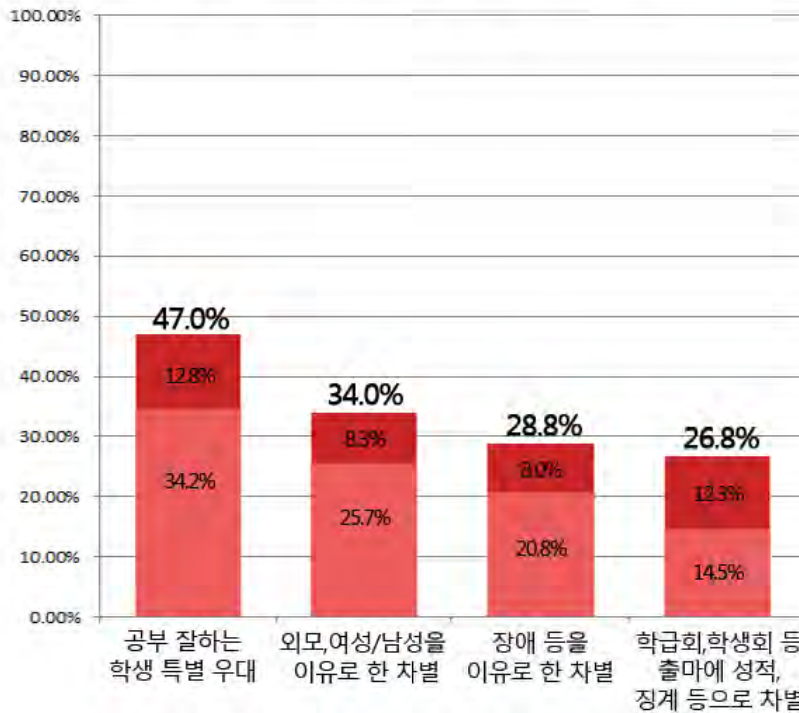
<표 18> 차별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특별히 잘해주기	374 (12.8%)	997 (34.2%)	904 (31.0%)	640 (22.0%)
외모, 여성/남성을 이유로 한 놀림이나 차별	241 (8.3%)	748 (25.7%)	1058 (36.3%)	864 (29.7%)
장애인이라고 또는 장애인 같이라며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차별 행위	232 (8.0%)	606 (20.8%)	955 (32.8%)	1119 (38.4%)
학급회, 학생회(어린이회) 출마하는 것에 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성적, 출결상황, 징계, 벌 등 조건을 달아 출마를 막는 것)	360 (12.3%)	424 (14.5%)	733 (25.1%)	1399 (48.0%)

동성애자 등 성(性)소수자를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차별 행위	93 (3.2%)	306 (10.5%)	785 (27.0%)	1721 (59.2%)
부모의 직업, 한부모가정, 경제 형편 등 가정형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차별하는 것	88 (3.0%)	157 (5.4%)	732 (25.1%)	1934 (66.4%)

차별 경험율이 높은 항목

("자주 있다" 응답수치 + "가끔 있다" 응답수치)

■ 자주 있다
■ 가끔 있다



<그림 5>

-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성적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 '외모, 여성/남성을 이유로 한 놀림이나 차별'도 34%, '장애로 인한 차별'도 28.8%에 이르렀고, 학급회나 학생회 출마를 제한하는 경우도 '26.8%'에 이르렀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곧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이른다.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어 노골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인지도가 낮은 상태여서 동성애자에 빗대어 서로를 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정형편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경험률을 보이는데, 이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비지원이 비공개 인원만이 접근하는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고,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 차별 시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19> 공부 잘하는 학생만 특별히 잘해주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교	초등	6 (2.1%)	58 (20.0%)	90 (31.0%)	136 (46.9%)	290 (100%)
	중학교	89 (9.1%)	252 (25.7%)	378 (38.5%)	263 (26.8%)	985 (100%)
	인문고	181 (18.6%)	424 (43.5%)	248 (25.4%)	122 (12.5%)	976 (100%)

	특성화고	85 (15.5%)	217 (39.5%)	151 (27.5%)	97 (17.6%)	551 (100%)
	특목고	12 (15.6%)	35 (45.5%)	20 (26.0%)	10 (13.0%)	77 (100%)
설립 별	국공립	292 (11.7%)	806 (32.3%)	803 (32.2%)	593 (23.8%)	2500 (100%)
	사립	82 (19.5%)	191 (45.4%)	101 (24.0%)	47 (11.2%)	421 (100%)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별로 꼽힌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초<중<고를 올라감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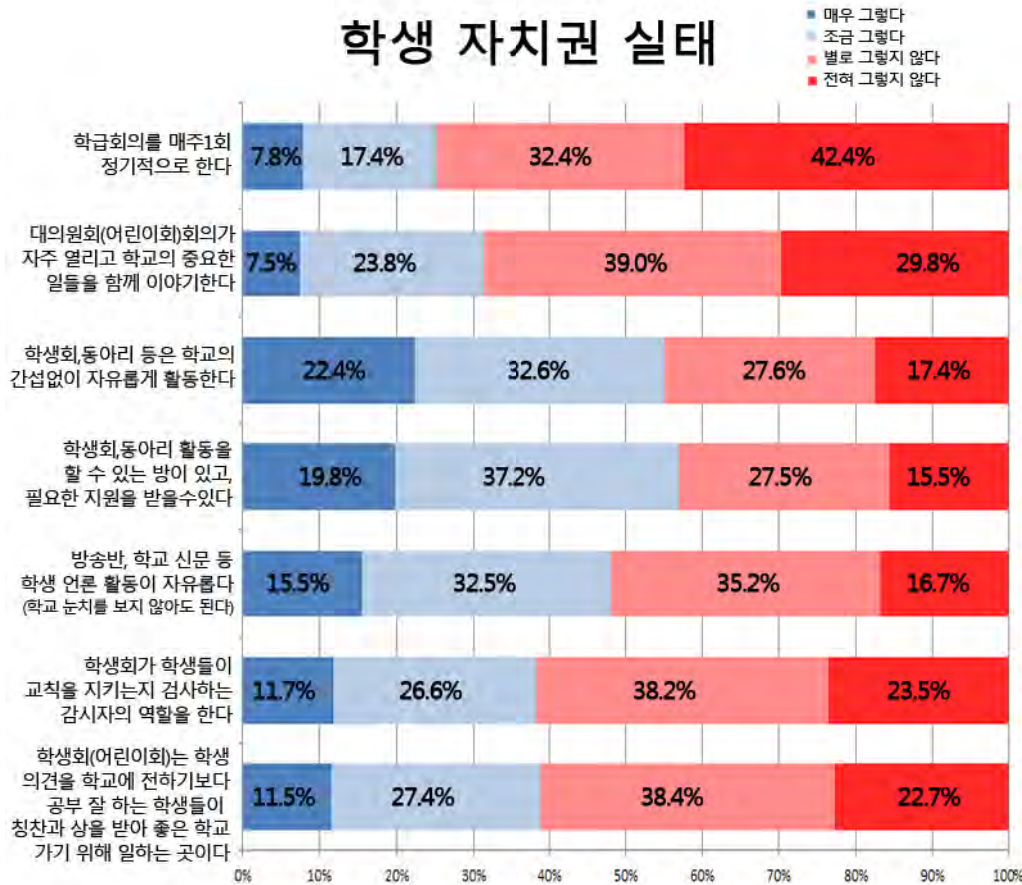
5) 학생 자치권과 참여

학생은 학교의 구성원이자 배움의 주체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마땅한 책임일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 자치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 반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학생자치권 실태

<표 20> 학생 자치권 실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급회의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한다.	2267 (7.8%)	505 (17.4%)	938 (32.4%)	1227 (42.4%)
대의원회(어린이회) 회의가 자주 열리고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한다.	215 (7.5%)	686 (23.8%)	1125 (39.0%)	858 (29.8%)
학생회, 동아리 등은 학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	648 (22.4%)	944 (32.6%)	799 (27.6%)	503 (17.4%)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이 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74 (19.8%)	1076 (37.2%)	796 (27.5%)	450 (15.5%)
방송반, 학교 신문 등 학생 언론 활동이 자유롭다(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449 (15.5%)	939 (32.5%)	1018 (35.2%)	484 (16.7%)
학생회가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는지 검사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339 (11.7%)	769 (26.6%)	1107 (38.2%)	680 (23.5%)
학생회(어린이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하기보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칭찬과 상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일하는 곳이다	334 (11.5%)	794 (27.4%)	1115 (38.4%)	658 (22.7%)

학생 자치권 실태



<그림 6>

- 학생 자치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알기 위해 학급회의의 개최 빈도,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자치론의 자율성 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학생회나 동아리, 언론 활동이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기초 단위의 학급회의가 1주일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이 74.8%에 이르렀고, 학생 대표 기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68.8%에 이르렀다.
- 특히 학생회가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8.3%에 이르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답한 학생들도 38.9%에 이르러 학생회가 학생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기구라기보다는 교사들의 학생 통제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학급회의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교	초등	47 (16.5%)	56 (19.7%)	74 (26.1%)	107 (37.7%)	290 (100%)
	중학교	62 (6.3%)	189 (19.3%)	337 (34.5%)	390 (39.9%)	985 (100%)
	인문고	85 (8.7%)	152 (15.6%)	284 (29.2%)	453 (46.5%)	976 (100%)
	특성화고	29 (5.3%)	94 (17.2%)	199 (36.3%)	226 (41.2%)	551 (100%)
	특목고	0 (0.0%)	8 (10.4%)	28 (36.4%)	41 (53.2%)	77 (100%)

<표 22> 대의원회(어린이회) 회의가 자주 열리고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교	초등	62 (21.9%)	90 (31.8%)	75 (26.5%)	56 (19.8%)	290 (100%)
	중학교	90 (9.3%)	271 (27.9%)	361 (37.2%)	248 (25.6%)	985 (100%)
	인문고	37 (3.8%)	194 (20.0%)	413 (42.5%)	328 (33.7%)	976 (100%)
	특성화고	25 (4.6%)	107 (19.5%)	233 (42.5%)	183 (33.4%)	551 (100%)
	특목고	0 (0.0%)	15 (19.7%)	30 (39.5%)	31 (40.8%)	77 (100%)

- 학급회의와 대의원회는 초<중>고로 갈수록 점점 더 잘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등교육이 초등교육에 비해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입시에 종속된 중등교육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입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급회의나 대의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0~60% 수준에 이르러 학생 자치권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의견의 반영 정도

<표 23> 학칙 등에 대한 학생 의견의 반영 정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칙, 급식, 학교행사, 재량휴업일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333 (11.4%)	879 (30.2%)	1055 (36.2%)	644 (22.1%)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대로 된다)	235 (8.1%)	779 (26.8%)	1161 (39.9%)	736 (25.3%)
학급규정, 학교생활규정 등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보다 교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교사의 의견대로 된다)	574 (19.8%)	1114 (38.4%)	891 (30.7%)	319 (11.0%)
학급규정, 학교생활규정 등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학부모의 의견대로 된다)	268 (9.2%)	919 (31.7%)	1223 (42.2%)	489 (16.9%)

- 학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22.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6.2%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학생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누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교사의 의견대로' 된다고 답한 학생은 58.2%, '학부모의 의견대로' 된다고 답한 학생은 40.9%인 반면, '학생의 의견대로' 된다고 답한 학생은 34.9%에 불과했다.

<표 24>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 규칙을 고치는 경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373 (12.8%)	487 (16.7%)	853 (29.3%)	1197 (41.1%)	2921 (100%)
학교	초등	5 (1.7%)	15 (5.2%)	60 (20.8%)	208 (72.2%)	290 (100%)
	중학교	80 (8.2%)	122 (12.5%)	278 (28.4%)	499 (51.0%)	985 (100%)
	인문고	164 (16.8%)	210 (21.5%)	314 (32.2%)	288 (29.5%)	976 (100%)
	특성화 고	104 (18.9%)	122 (22.2%)	177 (32.2%)	147 (26.7%)	551 (100%)
	특목고	16 (21.1%)	15 (19.7%)	11 (14.5%)	34 (44.7%)	77 (100%)
설립별	국공립	292 (11.7%)	393 (15.8%)	730 (29.3%)	1075 (43.2%)	2500 (100%)
	사립	81 (19.3%)	94 (22.4%)	123 (29.3%)	122 (29.0%)	421 (100%)

- 또한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만 보면, 초<중<고로 갈수록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의식과 기대감은 높아지는 데 반해 학교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학교 교칙에 대한 학생의 생각

<표 25> 학생 의견 반영과 규칙 준수의 상관성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의견대로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	649 (22.4%)	1129 (39.0%)	755 (26.1%)	363 (12.5%)

- 학생의 의견대로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답한 학생이 61.4%에 이르러, 규칙 위반이 발생하는 이유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비민주적 규칙 제정 과정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입시교육으로 인한 압박과 강제 수업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사회 경험을 누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그러나 성적공개처럼 공부/시험에 대한 과도한 압박, 정부와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강제 학습이 사실상 학교 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부 스트레스와 성적 공개

<표 26> 공부 스트레스와 성적 공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 시험 스트레스	450 (15.4%)	686 (23.5%)	883 (30.3%)	895 (30.7%)
성적(점수나 등수) 공개	449 (15.4%)	666 (22.9%)	810 (27.9%)	982 (33.8%)

-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이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은 38.9%,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적을 공개하는 잔인한 행위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 역시 38.3%로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7> 공부/시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경제수준의 비교 분석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업 성적	상	46 (20.4%)	40 (17.7%)	57 (25.2%)	83 (36.7%)	227 (100%)
	중상	86 (13.5%)	164 (25.8%)	183 (28.8%)	203 (31.9%)	638 (100%)
	중	143 (14.2%)	231 (23.0%)	337 (33.5%)	295 (29.3%)	1007 (100%)
	중하	107 (15.4%)	193 (27.7%)	210 (30.1%)	187 (26.8%)	697 (100%)
	하	57 (20.4%)	47 (16.8%)	81 (29.0%)	94 (33.7%)	280 (100%)
경제 수준	상	16 (16.0%)	20 (20.0%)	21 (21.0%)	43 (43.0%)	101 (100%)
	중상	81 (16.4%)	108 (21.9%)	134 (27.1%)	171 (34.6%)	496 (100%)
	중	236 (14.4%)	397 (24.2%)	528 (32.2%)	480 (29.3%)	1641 (100%)
	중하	86 (17.4%)	118 (23.8%)	149 (30.1%)	142 (28.7%)	495 (100%)
	하	23 (18.9%)	31 (25.4%)	34 (27.9%)	34 (27.9%)	123 (100%)

- 공부 압박과 시험 스트레스의 경우, 학업성적과 비교 분석해보면 성적의 높낮이와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도, 낮은 학생도 모두 공부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가족의 경제수준과 비교 분석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3.0%인 데 반해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7.9%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학업 성적도 낮은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강제 수업

<표 28>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강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562 (19.3%)	428 (14.7%)	620 (21.3%)	1302 (44.7%)	2912 (100%)
학교	초등	5 (1.7%)	8 (2.8%)	34 (11.8%)	242 (83.7%)	290 (100%)
	중학교	55 (5.6%)	96 (9.8%)	240 (24.4%)	592 (60.2%)	985 (100%)
	인문고	368 (37.7%)	208 (21.3%)	185 (19.0%)	214 (21.9%)	976 (100%)
	특성화고	83 (15.1%)	98 (17.9%)	144 (26.3%)	223 (40.7%)	551 (100%)
	특목고	47 (61.0%)	12 (15.6%)	4 (5.2%)	14 (18.2%)	77 (100%)
설립별	국공립	411 (16.5%)	344 (13.8%)	545 (21.9%)	1191 (47.8%)	2500 (100%)
	사립	151 (35.9%)	84 (20.0%)	75 (17.8%)	111 (26.4%)	421 (100%)

<표 29>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강제					
고등학생 (인문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498 (31.0%)	318 (19.8%)	333 (20.8%)	451 (28.1%)	1604 (100.0%)

- 야간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강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 역시 34.0%에 이르는 데, 강제 수업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등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강제는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를 합산하면 50.8%에 이르러 절반을 넘는다. 특히 인문고와 특성화고에서는 수업 강제가 두드러진다.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면, 공립학교에서 강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자주 있다'가 16.5%, '가끔 있다'가 13.8%인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각각 35.9%와 20.0%로 나타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가 학생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고 학생의 건강과 쉼 권리를 해치는 일이 잦은 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각별한 감독이 필요하다.

7) 소지품 검사와 휴대폰 사용 규제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같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소지품 검사 경험

<표 30> 소지품 검사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255 (8.8%)	395 (13.6%)	723 (24.8%)	1538 (52.8%)	2921 (100%)
학교	초등	5 (1.7%)	14 (4.8%)	43 (14.9%)	227 (78.5%)	290 (100%)
	중학교	31 (3.2%)	99 (10.1%)	261 (26.6%)	590 (60.1%)	985 (100%)
	인문고	69 (7.1%)	128 (13.1%)	277 (28.4%)	500 (51.3%)	976 (100%)
	특성화고	143 (26.0%)	132 (24.0%)	120 (21.8%)	155 (28.2%)	551 (100%)
	특목고	5 (6.5%)	16 (20.8%)	15 (19.5%)	41 (53.2%)	77 (100%)

- 소지품 검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은 22.4%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소지품 검사가 거의 없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보면 그 경험율은 더 높아진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인문고나 특목고에 비해 소지품 검사가 함부로 행해지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일괄 소지품 검사 경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227 (7.8%)	307 (10.6%)	615 (21.3%)	1743 (60.3%)	2921 (100%)
학교	초등	3 (1.0%)	7 (2.4%)	46 (16.0%)	232 (80.6%)	290 (100%)
	중학교	32 (3.3%)	75 (7.7%)	222 (22.7%)	651 (66.4%)	985 (100%)
	인문고	46 (4.7%)	99 (10.2%)	216 (22.2%)	611 (62.9%)	976 (100%)
	특성화고	138 (25.1%)	105 (19.1%)	107 (19.5%)	199 (36.2%)	551 (100%)
	특목고	6 (8.0%)	14 (18.7%)	17 (22.7%)	38 (50.7%)	77 (100%)
설립 별	국공립	211 (8.5%)	306 (12.3%)	606 (24.3%)	1368 (54.9%)	2500 (100%)
	사립	44 (10.5%)	89 (21.2%)	117 (27.9%)	170 (40.5%)	421 (100%)

- 일괄 소지품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생 전체를 마치 범죄자나 문제아로 취급하는 '불신에 기초한 행위'여서 매우 비교육적이다. 그럼에도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도 18.4%에 이르러 학생 5명 중 1명 꼴로 일괄 검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괄 소지품검사는 초<중<고 순으로 경험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는 경험률이 44.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그만큼 불신하고 통제 대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립학교(20.8%)에 비해 사립학교의 경험률(31.7%)도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소지품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표 32> 흥기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소지품검사를 학생의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94 (55.3%)	554 (19.2%)	339 (11.8%)	397 (13.8%)

- 소지품 검사의 방식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물었더니, '흥기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허락 없는 강제 소지품 검사는 안 된다'고 답한 학생이 74.5%로 압도적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들이 사적 공간과 물건에 대한 감시나 통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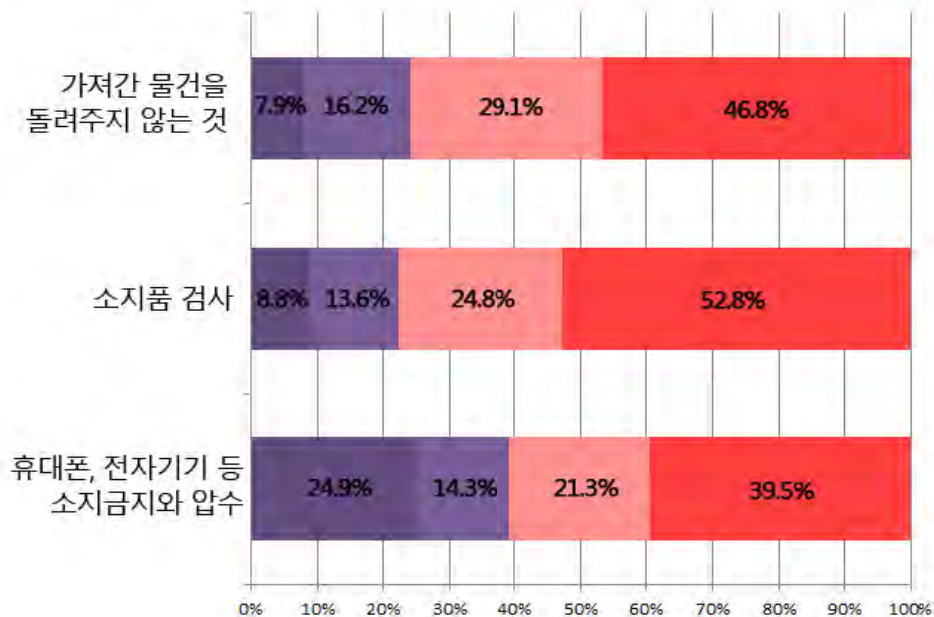
■ 휴대폰 규제

<표 33> 휴대폰, 전자기기 등 소지 금지와 압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727 (24.9%)	418 (14.3%)	621 (21.3%)	1152 (39.5%)

<표 34>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229 (7.9%)	472 (16.2%)	847 (29.1%)	1363 (46.8%)	2921 (100%)
학교	초등	6 (2.1%)	21 (7.2%)	47 (16.2%)	216 (74.5%)	290 (100%)
	중학교	47 (4.8%)	143 (14.6%)	289 (29.5%)	502 (51.2%)	985 (100%)
	인문고	75 (7.7%)	167 (17.1%)	321 (33.0%)	411 (42.2%)	976 (100%)
	특성화고	88 (16.0%)	119 (21.7%)	163 (29.7%)	179 (32.6%)	551 (100%)
	특목고	10 (13.0%)	16 (20.8%)	19 (24.7%)	32 (41.6%)	77 (100%)
설립별	국공립	183 (7.3%)	378 (15.2%)	715 (28.7%)	1214 (48.8%)	2500 (100%)
	사립	46 (10.9%)	94 (22.3%)	132 (31.4%)	149 (35.4%)	421 (100%)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경험 빈도

■ 자주 있다
■ 가끔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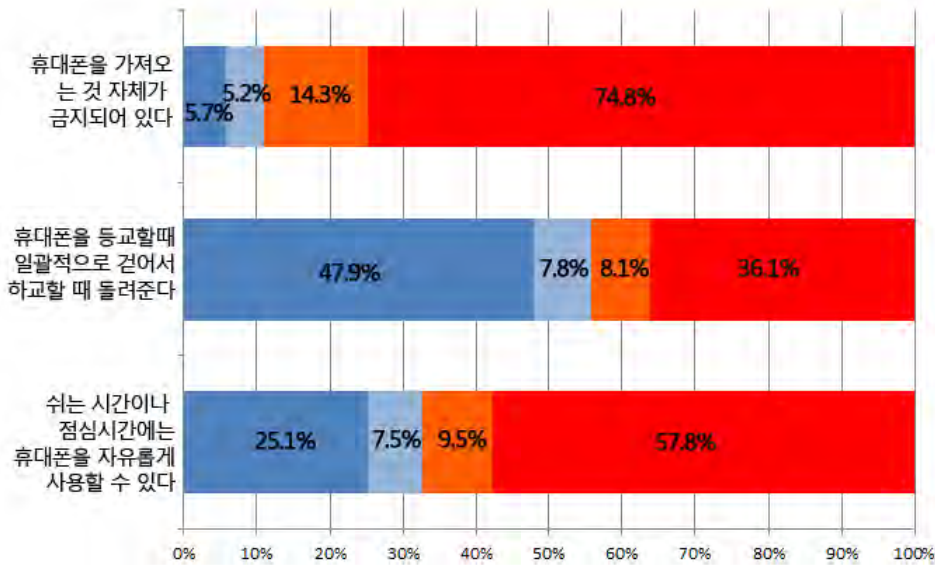
<그림 7>

- 휴대폰, 전자기기 등에 대한 소지 금지와 압수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은 39.2%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휴대폰 등에 대한 금지.압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도 24.1%에 이르렀는데, 특히 특성화고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공립학교(22.5%)에 비해 사립학교(33.2%)에서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더 잦다.

<표 35> 휴대폰 소지.사용 규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164 (5.7%)	151 (5.2%)	416 (14.3%)	2168 (74.8%)
휴대폰을 등교할 때 일괄적으로 걷어서 하교할 때 돌려준다	1387 (47.9%)	227 (7.8%)	234 (8.1%)	1045 (36.1%)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731 (25.2%)	216 (7.5%)	274 (9.5%)	1675 (57.8%)

휴대폰 소지·사용 규제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림 8>

- 휴대폰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원천 금지된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등교와 함께 일괄적으로 걷어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가 5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32.7%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67.3%에 이르러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드러냈다. 휴대폰 규제의 논리가 '수업 방해'임에 반해, 수업과 관련 없는 학생의 자유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8) 부당 징계 경험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변론권 보장, 재심권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나 벌을 받는 경험은 학생의 정서적 상태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진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징계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의 성찰과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징계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거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벌점이나 처벌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벌점이나 벌을 잘못된 것보다 지나치게 주는 것	330 (11.4%)	454 (15.7%)	853 (29.5%)	1254 (43.4%)	2921 (100%)
징계 시 학생의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313 (10.8%)	431 (14.8%)	864 (29.7%)	1298 (44.7%)	2921 (100%)

- 벌점이나 벌을 잘못된 것보다 지나치게 준다고 느끼는 학생이 27%에 이르렀고, 징계할 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도 25.6%에 이르렀다.

<표 37> 과도한 벌 부과와 변호권 박탈 경험 비교						
		징계 시 학생의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벌점이나 벌을 잘못된 것보다 지나치게 주는 것	자주 있다	185 (56.4%)	64 (19.5%)	56 (17.1%)	23 (7.0%)	328 (100.0%)
	가끔 있다	67 (14.8%)	170 (37.5%)	150 (33.1%)	66 (14.6%)	453 (100.0%)
	별로 없다	40 (4.7%)	127 (14.9%)	495 (58.2%)	189 (22.2%)	851 (100.0%)
	전혀 없다	18 (1.4%)	63 (5.1%)	157 (12.6%)	1008 (80.9%)	1246 (100.0%)
	합계	310 (10.8%)	424 (14.7%)	858 (29.8%)	1286 (44.7%)	2878 (100.0%)

- 학생들은 징계 시 학생의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답한 학생일수록 벌점이나 벌을 잘못된 것보다 지나치게 주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변호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학생이 학교의 조치에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학생의 변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징계의 운용, 학생들도 수용할 만한 교육적인 징계가 가능해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9)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인권교육 경험

학생 역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와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와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이 물론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수는 관련 정보와 지식에서 배제되어 있고,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표 38> 인권침해에 대한 학생의 해결 방법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	부모님과 상의한다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 홈페이지 등에 건의한다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못본 척 한다	합계
전체		709 (24.7%)	746 (26.0%)	100 (3.5%)	161 (5.6%)	1150 (40.1%)	2921 (100%)
학교	초등	85 (30.1%)	146 (51.8%)	12 (4.3%)	8 (2.8%)	31 (11.0%)	290 100%
	중학교	310 32.4%	252 26.3%	33 3.4%	60 6.3%	302 (31.6%)	985 100%
	인문고	153 (15.9%)	212 (22.0%)	29 (3.0%)	55 (5.7%)	516 (53.5%)	976 100%
	특성화 고	124 (22.7%)	116 (21.2%)	22 (4.0%)	32 (5.9%)	253 (46.3%)	551 100%
	특목고	22 (28.6%)	13 (16.9%)	1 (1.3%)	5 (6.5%)	36 (46.8%)	77 100%

-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테니 못본 척 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40.1%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못 본 척한다'고 답한 비율이 올라감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침해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학교가 '부당함을 건디는 능력'을 학습하는 곳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인권옹호기관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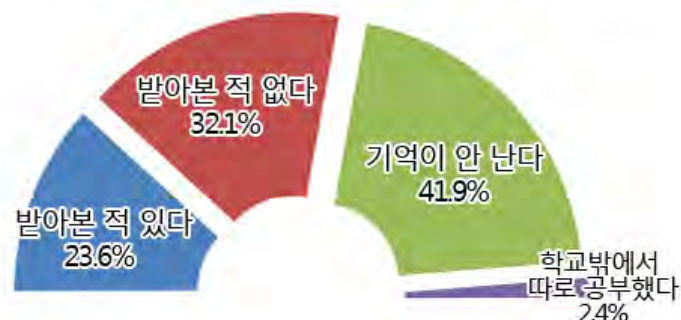
<표 39>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전체		241 (8.4%)	955 (33.2%)	973 (33.8%)	711 (24.7%)	2921 (100%)
학교	초등	27 (9.3%)	126 (43.6%)	92 (31.8%)	44 (15.2%)	290 (100%)
	중학교	102 (10.6%)	380 (39.5%)	273 (28.4%)	207 (21.5%)	985 (100%)
	인문고	53 (5.5%)	260 (26.8%)	375 (38.7%)	282 (29.1%)	976 (100%)
	특성화고	49 (9.0%)	148 (27.1%)	204 (37.3%)	146 (26.7%)	551 (100%)
	특목고	6 (7.8%)	25 (32.5%)	22 (28.6%)	24 (31.2%)	77 (100%)
경제수준	상	20 (20.4%)	31 (31.6%)	22 (22.4%)	25 (25.5%)	101 (100%)
	중상	53 (10.8%)	171 (35.0%)	138 (28.2%)	127 (26.0%)	496 (100%)
	중	115 (7.1%)	556 (34.2%)	592 (36.4%)	362 (22.3%)	1641 (100%)
	중하	35 (7.2%)	144 (29.4%)	167 (34.2%)	143 (29.2%)	495 (100%)
	하	13 (10.7%)	31 (25.6%)	37 (30.6%)	40 (33.1%)	123 (100%)
학업성적	상	32 (14.2%)	78 (34.7%)	54 (24.0%)	61 (27.1%)	227 (100%)
	중상	49 (7.8%)	213 (33.8%)	227 (36.0%)	141 (22.4%)	638 (100%)
	중	87 (8.7%)	330 (33.1%)	352 (35.3%)	229 (22.9%)	1007 (100%)
	중하	50 (7.3%)	228 (33.2%)	236 (34.4%)	172 (25.1%)	697 (100%)
	하	17 (6.1%)	82 (29.6%)	86 (31.0%)	92 (33.2%)	280 (100%)

-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옹호기관(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등)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가 58.5%에 이르렀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 학교급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인권옹호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학생들이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권교육 경험

<표 40> 학생인권,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지 여부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학교 밖에서 따로 공부했다	합계
전체		679 (23.6%)	923 (32.1%)	1205 (41.9%)	68 (2.4%)	2921 (100%)
학교	초등	66 (23.1%)	49 (17.1%)	163 (57.0%)	8 (2.8%)	290 (100%)
	중학교	330 (34.3%)	213 (22.1%)	399 (41.5%)	20 (2.1%)	985 (100%)
	인문고	166 (17.1%)	412 (42.6%)	370 (38.2%)	20 (2.1%)	976 (100%)
	특성화고	87 (15.9%)	211 (38.6%)	232 (42.5%)	16 (2.9%)	551 (100%)
	특목고	20 (26.0%)	32 (41.6%)	23 (29.9%)	2 (2.6%)	77 (100%)

학교에서 인권교육 경험 (학생인권,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



<그림 9>

- 인권교육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수단이면서 '권리를 알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인권교육 경험에 대해서도 23.6%의 학생만이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학생도 41.9%에 이르러 인권교육의 경험 자체가 없거나 있었더라도 횟수가 부족하고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침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률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문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훨씬 낮다.

10) 인권침해 경험 정도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학생인권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실태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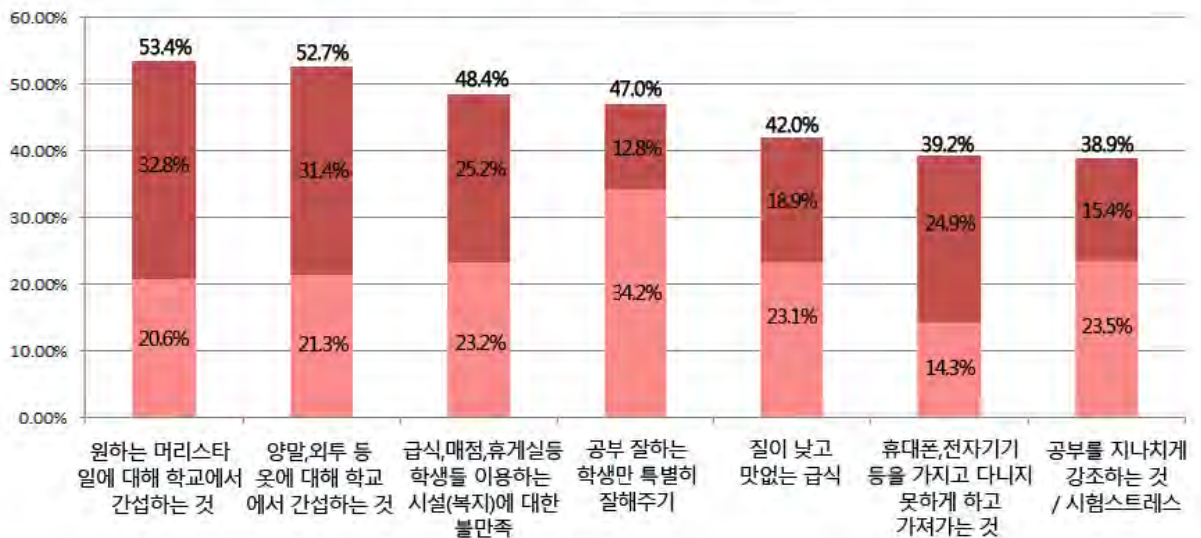
<표 4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경험 또는 목격한 인권침해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특별히 잘해주기	374 (12.8%)	997 (34.2%)	904 (31.0%)	640 (22.0%)
외모, 여성/남성을 이유로 한 놀림이나 차별	241 (8.3%)	748 (25.7%)	1058 (36.3%)	864 (29.7%)
장애인이라고 또는 장애인 같이라며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차별 행위	232 (8.0%)	606 (20.8%)	955 (32.8%)	1119 (38.4%)
동성애자 등 성(性)소수자를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차별 행위	93 (3.2%)	306 (10.5%)	785 (27.0%)	1721 (59.2%)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체벌	180 (6.2%)	496 (17.0%)	868 (29.8%)	1368 (47.0%)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	238 (8.2%)	599 (20.6%)	840 (28.9%)	1228 (42.3%)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성희롱·성폭력	43 (1.5%)	115 (4.0%)	644 (22.2%)	2104 (72.4%)
학생들 사이의 폭력과 따돌림	150 (5.2%)	632 (21.7%)	1111 (38.2%)	1019 (35.0%)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성폭력	72 (2.5%)	191 (6.6%)	842 (28.9%)	1807 (62.1%)
선배가 후배들에게 강제로 인사나 선물을 하게 하는 것	150 (5.2%)	293 (10.1%)	763 (26.3%)	1700 (58.5%)
원하는 머리스타일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955 (32.8%)	599 (20.6%)	521 (17.9%)	836 (28.7%)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913 (31.4%)	619 (21.3%)	531 (18.2%)	849 (29.2%)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562 (19.3%)	428 (14.7%)	620 (21.3%)	1302 (44.7%)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 시험 스트레스	450 (15.4%)	686 (23.5%)	883 (30.3%)	895 (30.7%)
원하지 않는 과목의 공부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	387 (13.3%)	534 (18.4%)	971 (33.4%)	1018 (35.0%)
원하지 않는 학교행사, 봉사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	254 (8.7%)	447 (15.4%)	995 (34.2%)	1215 (41.7%)
소지품 검사	255 (8.8%)	395 (13.60%)	723 (24.80%)	1538 (52.80%)
휴대폰,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져가는 것	727 (24.9%)	418 (14.3%)	621 (21.3%)	1152 (39.5%)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229 (7.9%)	472 (16.2%)	847 (29.1%)	1363 (46.8%)
성적(점수나 등수) 공개	449 (15.4%)	666 (22.9%)	810 (27.9%)	982 (33.8%)
부모의 직업, 한부모가정, 경제 형편 등 가정형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차별하는 것	88 (3.0%)	157 (5.4%)	732 (25.1%)	1934 (66.4%)

종교활동이나 종교교육을 강제로 하는 것	62 (2.1%)	100 (3.4%)	478 (16.4%)	2269 (78.0%)
학생들이 하는 모임이나 설문조사, 의견 표시를 못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것 (서명 운동, 집회 등)	121 (4.2%)	197 (6.8%)	728 (25.1%)	1860 (64.0%)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 규칙을 고치는 경우	373 (12.8%)	487 (16.7%)	853 (29.3%)	1197 (41.1%)
학급회, 학생회(어린이회) 출마하는 것에 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성적, 출결상황, 징계, 벌 등 조건을 달아 출마를 막는 것)	360 (12.3%)	424 (14.5%)	733 (25.1%)	1399 (48.0%)
벌점이나 벌을 잘못된 것보다 지나치게 주는 것	330 (11.4%)	454 (15.7%)	853 (29.5%)	1254 (43.4%)
징계 시 학생의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313 (10.8%)	431 (14.8%)	864 (29.7%)	1298 (44.7%)
급식, 매점, 휴게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복지)에 대한 불만족	735 (25.2%)	676 (23.2%)	662 (22.7%)	842 (28.9%)
질이 낮고 맛있는 급식	552 (18.9%)	672 (23.1%)	792 (27.2%)	897 (30.8%)
친구(이성친구 포함)관계에 대해 간섭하고 못 사귀게 하는 것	214 (7.4%)	303 (10.4%)	753 (25.9%)	1640 (56.4%)

최근 1년간 인권침해 경험율이 높은 항목

("자주 있다" 응답수치 + "가끔 있다" 응답수치)

■ 자주 있다
■ 가끔 있다



<그림 10>

- 조사 결과, 학생들은 △원하는 머리스타일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 △급식, 매점, 휴게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복지)에 대한 불만족 →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우대 → △질이 낮고 맛있는 급식 → △휴대폰, 전자기기 등 소지금지와 압수 → △공부.시험 스트레스 → △성적(점수나 등수) 공개 →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 강제 → △외모, 여성/남성을 이유로 한 놀림이나 차별 등의 순으로 인권침해를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에 비해 두발.복장 단속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학생들이 그나마 힘든 학교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나 급식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2.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느끼고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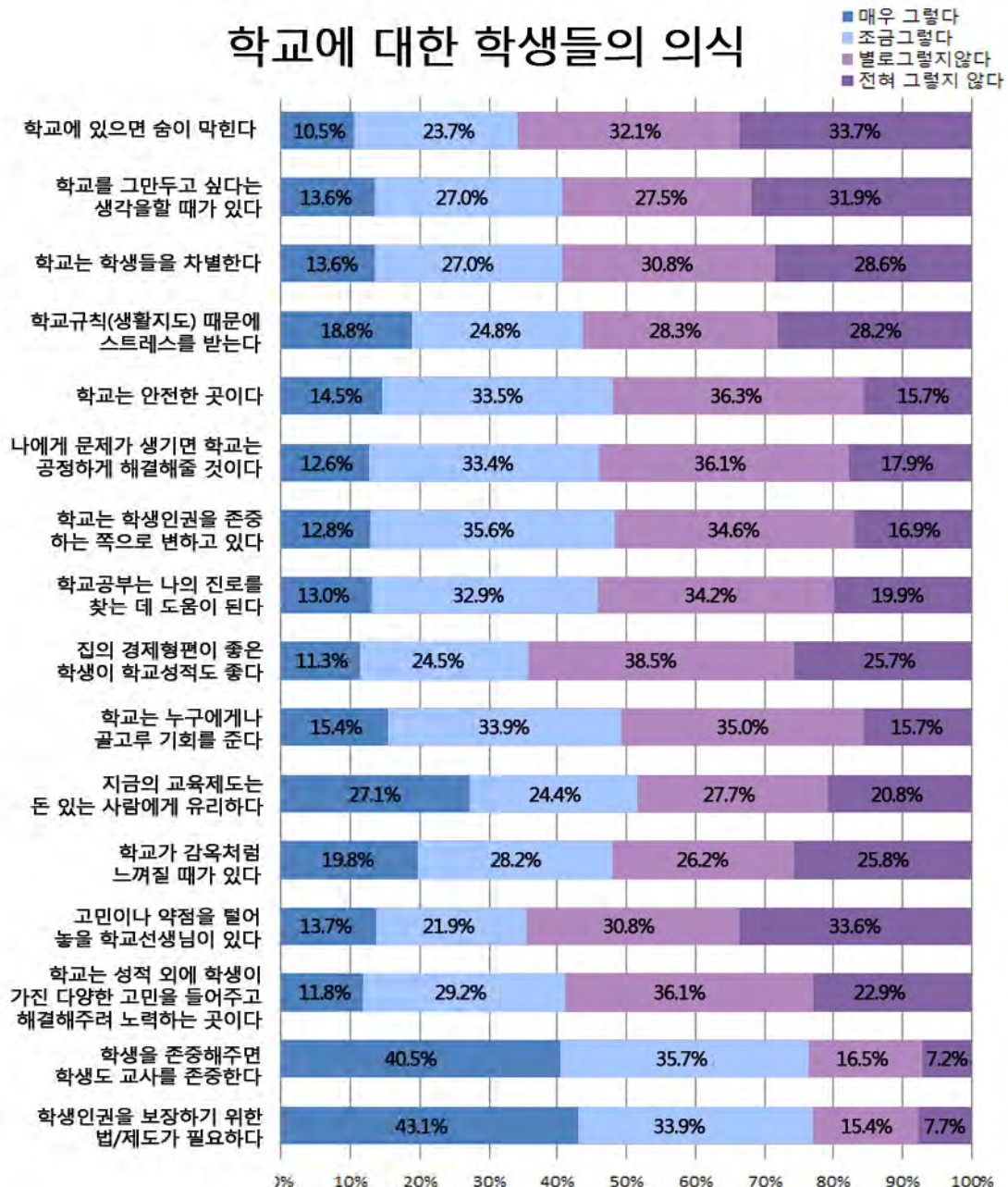
1) 학교에 대한 인식

<표 42>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303 (10.5%)	684 (23.7%)	925 (32.1%)	973 (33.7%)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394 (13.6%)	782 (27.0%)	795 (27.5%)	923 (31.9%)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한다	394 (13.6%)	779 (27.0%)	889 (30.8%)	827 (28.6%)
학교 규칙(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542 (18.8%)	716 (24.8%)	817 (28.3%)	813 (28.2%)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419 (14.5%)	967 (33.5%)	1047 (36.3%)	452 (15.7%)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는 공정하게(한쪽편을 들지 않고 바르게) 해결해줄 것이다	365 (12.6%)	964 (33.4%)	1041 (36.1%)	516 (17.9%)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370 (12.8%)	1026 (35.6%)	998 (34.6%)	488 (16.9%)
학교공부는 나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376 (13.0%)	948 (32.9%)	986 (34.2%)	575 (19.9%)
집의 경제형편이 좋은 학생이 학교 성적도 좋다	325 (11.3%)	705 (24.5%)	1109 (38.5%)	739 (25.7%)
학교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준다.	445 (15.4%)	977 (33.9%)	1008 (35.0%)	452 (15.7%)
지금의 교육제도는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778 (27.1%)	702 (24.4%)	797 (27.7%)	599 (20.8%)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570 (19.8%)	812 (28.2%)	754 (26.2%)	744 (25.8%)
고민이나 약점을 털어놓을 학교 선생님이 있다	393 (13.7%)	630 (21.9%)	885 (30.8%)	967 (33.6%)
학교는 성적 외에 다양한 고민(가족문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부당대우, 친구관계, 정체성 등) 학생이 가진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 노력하는 곳이다	339 (11.8%)	838 (29.2%)	1038 (36.1%)	658 (22.9%)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1160 (40.5%)	1021 (35.7%)	473 (16.5%)	207 (7.2%)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1226 (43.1%)	963 (33.9%)	437 (15.4%)	218 (7.7%)

○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한 학생은 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답한 학생은 40.6%,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학생은 43.6%,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48.0%에 이르러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의 공정성, 안정성, 반차별, 동등한 대우, 교육제도의 공평성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학교 공부가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도 54.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도 34.2%에 이르러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함이 드러났다.

- 이렇게 궁지에 몰린 학생들이 많음에도 학생들은 외로웠다. 학교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살핌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학교가 성적 외에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에 5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민이나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학교 선생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64.4%에 이르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그럼에도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도 절반이 넘는 51.5%에 이른다. 반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77.7%로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고 답한 학생 역시 76.2%에 이르렀다.



<그림 11>

2) 학교급별/ 경제.학업 수준별 인식 차이

다음으로 학교급별, 학생의 경제수준이나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를 살펴본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항목에 대해서만 소개했다.

<표 43>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03 (10.5%)	684 (23.7%)	925 (32.1%)	973 (33.7%)	2921 (100%)
경제 수준	상	19 (19.0%)	13 (13.0%)	23 (23.0%)	45 (45.0%)	101 (100%)
	중상	47 (9.5%)	113 (22.9%)	139 (28.1%)	195 (39.5%)	496 (100%)
	중	150 (9.2%)	386 (23.6%)	556 (34.0%)	544 (33.3%)	1641 (100%)
	중하	65 (13.2%)	128 (25.9%)	159 (32.2%)	142 (28.7%)	495 (100%)
	하	22 (18.2%)	35 (28.9%)	34 (28.1%)	30 (24.8%)	123 (100%)
학업 성적	상	31 (13.7%)	39 (17.3%)	64 (28.3%)	92 (40.7%)	227 (100%)
	중상	48 (7.6%)	139 (22.0%)	204 (32.2%)	242 (38.2%)	638 (100%)
	중	85 (8.5%)	233 (23.2%)	336 (33.5%)	350 (34.9%)	1007 (100%)
	중하	83 (12.0%)	173 (24.9%)	239 (34.4%)	199 (28.7%)	697 (100%)
	하	55 (19.7%)	86 (30.8%)	70 (25.1%)	68 (24.4%)	280 (100%)

- 경제수준을 '중하'로 답한 학생들의 39.1%, '하'라고 답한 학생들의 47.1%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해 학교생활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인 50.5%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하였다.

<표 44>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94 (13.6%)	782 (27.0%)	795 (27.5%)	923 (31.9%)	2921 (100.0%)
학교	초등	10 (3.5%)	56 (19.4%)	77 (26.6%)	146 (50.5%)	290 (100%)
	중학교	98 (10.0%)	199 (20.3%)	285 (29.0%)	400 (40.7%)	985 (100%)
	인문고	156 (16.0%)	307 (31.5%)	273 (28.0%)	239 (24.5%)	976 (100%)
	특성화고	122 (22.1%)	188 (34.1%)	137 (24.9%)	104 (18.9%)	551 (100%)

	특목고	6 (7.8%)	26 (33.8%)	18 (23.4%)	27 (35.1%)	77 (100%)
경제 수준	상	15 (14.9%)	21 (20.8%)	21 (20.8%)	44 (43.6%)	101 (100%)
	중상	63 (12.7%)	111 (22.4%)	132 (26.7%)	189 (38.2%)	496 (100%)
	중	198 (12.1%)	457 (27.9%)	460 (28.0%)	525 (32.0%)	1641 (100%)
	중하	83 (16.8%)	145 (29.3%)	144 (29.1%)	123 (24.8%)	495 (100%)
	하	32 (26.2%)	37 (30.3%)	27 (22.1%)	26 (21.3%)	123 (100%)
학업 성적	상	24 (10.6%)	57 (25.1%)	46 (20.3%)	100 (44.1%)	227 (100%)
	중상	75 (11.8%)	165 (25.9%)	157 (24.6%)	240 (37.7%)	638 (100%)
	중	101 (10.0%)	280 (27.9%)	295 (29.4%)	329 (32.7%)	1007 (100%)
	중하	111 (15.9%)	188 (27.0%)	214 (30.7%)	183 (26.3%)	697 (100%)
	하	80 (28.7%)	76 (27.2%)	71 (25.4%)	52 (18.6%)	280 (100%)

-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47.5%, 특성화고 56.2%, 특목고 43.6% 등 학교 종류에 관계없이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만두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낮아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45>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94 (13.6%)	779 (27.0%)	889 (30.8%)	827 (28.6%)	2921 (100%)
경제 수준	상	16 (15.8%)	18 (17.8%)	28 (27.7%)	39 (38.6%)	101 (100%)
	중상	76 (15.4%)	117 (23.6%)	143 (28.9%)	159 (32.1%)	496 (100%)
	중	213 (13.0%)	445 (27.2%)	506 (30.9%)	474 (28.9%)	1641 (100%)
	중하	72 (14.6%)	152 (30.8%)	161 (32.6%)	109 (22.1%)	495 (100%)
	하	15 (12.3%)	40 (32.8%)	37 (30.3%)	30 (24.6%)	123 (100%)

-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0.6%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높게 나타났다.

<div> <div><표 46> “학교 규칙(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div> </div>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542 (18.8%)	716 (24.8%)	817 (28.3%)	813 (28.2%)	2921 (100%)
학 교	초등	9 (3.1%)	39 (13.6%)	78 (27.3%)	160 (55.9%)	290 (100%)
	중학교	133 (13.5%)	188 (19.1%)	325 (33.1%)	336 (34.2%)	985 (100%)
	인문고	197 (20.2%)	295 (30.3%)	274 (28.1%)	208 (21.4%)	976 (100%)
	특성화고	180 (32.8%)	175 (31.9%)	118 (21.5%)	76 (13.8%)	551 (100%)
	특목고	20 (26.0%)	13 (16.9%)	17 (22.1%)	27 (35.1%)	77 (100%)
경 제 수 준	상	20 (19.8%)	20 (19.8%)	20 (19.8%)	41 (40.6%)	101 (100%)
	중상	86 (17.4%)	112 (22.7%)	140 (28.4%)	155 (31.4%)	496 (100%)
	중	306 (18.7%)	408 (24.9%)	476 (29.1%)	448 (27.4%)	1641 (100%)
	중하	99 (20.0%)	133 (26.9%)	138 (27.9%)	125 (25.3%)	495 (100%)
	하	27 (22.5%)	35 (29.2%)	29 (24.2%)	29 (24.2%)	123 (100%)

- '학교 규칙(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에 대해 43.6%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64.7%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 규칙(생활지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의 학교문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학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요인이 학업뿐 아니라 학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규칙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도를 받거나 학교 규칙을 따르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div> <div><표 47>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는 공정하게(한쪽 편을 들지 않고 바르게) 해결해줄 것이다”</div> </div>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65 (12.6%)	964 (33.4%)	1041 (36.1%)	516 (17.9%)	2921 (100%)
학 교	초등	83 (28.7%)	115 (39.8%)	50 (17.3%)	41 (14.2%)	290 (100%)
	중학교	149 (15.2%)	358 (36.5%)	325 (33.2%)	148 (15.1%)	985 (100%)

	인문고	70 (7.2%)	305 (31.3%)	405 (41.6%)	194 (19.9%)	976 (100%)
	특성화고	53 (9.7%)	154 (28.1%)	232 (42.3%)	109 (19.9%)	551 (100%)
	특목고	9 (11.7%)	25 (32.5%)	25 (32.5%)	18 (23.4%)	77 (100%)

- '학교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고의 경우는 61.5%, 특성화고의 경우는 62.2%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학교가 공정하지 않게 문제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70 (12.8%)	1026 (35.6%)	998 (34.6%)	488 (16.9%)	2921 (100%)
학교	초등	80 (28.2%)	110 (38.7%)	53 (18.7%)	41 (14.4%)	290 (100%)
	중학교	147 (15.0%)	395 (40.3%)	302 (30.8%)	136 (13.9%)	985 (100%)
	인문고	87 (8.9%)	332 (34.1%)	370 (38.0%)	184 (18.9%)	976 (100%)
	특성화고	43 (7.8%)	155 (28.2%)	240 (43.6%)	112 (20.4%)	551 (100%)
	특목고	10 (13.0%)	28 (36.4%)	28 (36.4%)	11 (14.3%)	77 (100%)
경제수준	상	25 (24.8%)	26 (25.7%)	24 (23.8%)	26 (25.7%)	101 (100%)
	중상	67 (13.6%)	196 (39.8%)	148 (30.0%)	82 (16.6%)	496 (100%)
	중	203 (12.4%)	582 (35.6%)	583 (35.7%)	265 (16.2%)	1641 (100%)
	중하	55 (11.1%)	182 (36.8%)	184 (37.2%)	74 (14.9%)	495 (100%)
	하	13 (10.7%)	29 (23.8%)	48 (39.3%)	32 (26.2%)	123 (100%)
학업성적	상	42 (18.5%)	76 (33.5%)	67 (29.5%)	42 (18.5%)	227 (100%)
	중상	99 (15.6%)	251 (39.5%)	181 (28.5%)	104 (16.4%)	638 (100%)
	중	134 (13.4%)	366 (36.5%)	346 (34.5%)	156 (15.6%)	1007 (100%)
	중하	55 (7.9%)	242 (34.9%)	277 (40.0%)	119 (17.2%)	697 (100%)
	하	30 (10.8%)	77 (27.6%)	113 (40.5%)	59 (21.1%)	280 (100%)

- '학교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로 갈수록 적은 수의 학생이 동의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집이 가난하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됨을 의미한다.

<표 49> “학교공부는 나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76 (13.0%)	948 (32.9%)	986 (34.2%)	575 (19.9%)	2921 (100%)
학교	초등	87 (30.4%)	102 (35.7%)	61 (21.3%)	36 (12.6%)	290 (100%)
	중학교	143 (14.6%)	344 (35.1%)	330 (33.7%)	162 (16.5%)	985 (100%)
	인문고	68 (7.0%)	277 (28.4%)	374 (38.4%)	256 (26.3%)	976 (100%)
	특성화고	64 (11.6%)	190 (34.5%)	194 (35.2%)	103 (18.7%)	551 (100%)
	특목고	12 (15.8%)	28 (36.8%)	24 (31.6%)	12 (15.8%)	77 (100%)
경제수준	상	23 (23.2%)	27 (27.3%)	23 (23.2%)	26 (26.3%)	101 (100%)
	중상	76 (15.4%)	155 (31.3%)	159 (32.1%)	105 (21.2%)	496 (100%)
	중	194 (11.9%)	569 (34.8%)	577 (35.2%)	297 (18.1%)	1641 (100%)
	중하	63 (12.8%)	156 (31.6%)	175 (35.5%)	99 (20.1%)	495 (100%)
	하	16 (13.1%)	28 (23.0%)	39 (32.0%)	39 (32.0%)	123 (100%)
학업성적	상	37 (16.4%)	83 (36.9%)	56 (24.9%)	49 (21.8%)	227 (100%)
	중상	102 (16.0%)	217 (34.1%)	211 (33.2%)	106 (16.7%)	638 (100%)
	중	135 (13.4%)	359 (35.7%)	351 (34.9%)	160 (15.9%)	1007 (100%)
	중하	71 (10.2%)	200 (28.9%)	259 (37.4%)	163 (23.5%)	697 (100%)
	하	26 (9.3%)	75 (26.9%)	93 (33.3%)	85 (30.5%)	280 (100%)

- ‘학교 공부가 나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1%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인문계 학생의 경우 6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를 그저 견뎌내는 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수준을 '하'라고 답한 학생 가운데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64%, 학업성적이 '하'라고 답한 학생 가운데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63.8%에 이르렀다.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낮아질수록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50> “집의 경제형편이 좋은 학생이 학교 성적도 좋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25 (11.3%)	705 (24.5%)	1109 (38.5%)	739 (25.7%)	2921 (100%)
경제수준	상	17 (16.8%)	15 (14.9%)	35 (34.7%)	34 (33.7%)	101 (100%)
	중상	58 (11.8%)	122 (24.9%)	176 (35.9%)	134 (27.3%)	496 (100%)
	중	157 (9.6%)	407 (24.9%)	664 (40.7%)	405 (24.8%)	1641 (100%)
	중하	64 (13.0%)	123 (24.9%)	188 (38.1%)	119 (24.1%)	495 (100%)
	하	25 (20.7%)	26 (21.5%)	34 (28.1%)	36 (29.8%)	123 (100%)

- 집의 경제 형편이 좋은 학생이 학교 성적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특히 경제수준이 '하'라고 답한 학생의 42.2%,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집안의 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학교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준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445 (15.4%)	977 (33.9%)	1008 (35.0%)	452 (15.7%)	2921 (100%)
학교	초등	126 (43.8%)	90 (31.3%)	46 (16.0%)	26 (9.0%)	290 (100%)
	중학교	183 (18.7%)	374 (38.3%)	296 (30.3%)	124 (12.7%)	985 (100%)
	인문고	72 (7.4%)	307 (31.6%)	415 (42.7%)	179 (18.4%)	976 (100%)
	특성화고	58 (10.5%)	172 (31.3%)	215 (39.1%)	105 (19.1%)	551 (100%)
	특목고	5 (6.5%)	26 (33.8%)	32 (41.6%)	14 (18.2%)	77 (100%)
경제수준	상	31 (31.0%)	27 (27.0%)	27 (27.0%)	15 (15.0%)	101 (100%)
	중상	92 (18.7%)	148 (30.0%)	160 (32.5%)	93 (18.9%)	496 (100%)
	중	237 (14.5%)	571 (34.9%)	583 (35.7%)	244 (14.9%)	1641 (100%)
	중하	69 (13.9%)	181 (36.6%)	182 (36.8%)	63 (12.7%)	495 (100%)
	하	14 (11.6%)	33 (27.3%)	44 (36.4%)	30 (24.8%)	123 (100%)

- '학교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6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부정하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42%인 데 반해 '하'라고 답한 학생은 61.2%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2> “지금의 교육제도는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778 (27.1%)	702 (24.4%)	797 (27.7%)	599 (20.8%)	2921 (100%)
학교	초등	16 (5.6%)	35 (12.2%)	95 (33.2%)	140 (49.0%)	290 (100%)
	중학교	191 (19.6%)	206 (21.1%)	310 (31.8%)	268 (27.5%)	985 (100%)
	인문고	390 (40.1%)	290 (29.8%)	204 (21.0%)	88 (9.1%)	976 (100%)
	특성화고	141 (25.7%)	145 (26.4%)	173 (31.5%)	90 (16.4%)	551 (100%)
	특목고	37 (48.1%)	23 (29.9%)	8 (10.4%)	9 (11.7%)	77 (100%)
설립별	국공립	578 (23.5%)	578 (23.5%)	735 (29.9%)	568 (23.1%)	2500 (100%)
	사립	200 (48.0%)	124 (29.7%)	62 (14.9%)	31 (7.4%)	421 (100%)
경제수준	상	21 (20.8%)	16 (15.8%)	28 (27.7%)	36 (35.6%)	101 (100%)
	중상	135 (27.4%)	108 (21.9%)	134 (27.2%)	116 (23.5%)	496 (100%)
	중	413 (25.3%)	413 (25.3%)	472 (28.9%)	334 (20.5%)	1641 (100%)
	중하	160 (32.3%)	132 (26.7%)	121 (24.4%)	82 (16.6%)	495 (100%)
	하	43 (36.1%)	24 (20.2%)	30 (25.2%)	22 (18.5%)	123 (100%)

- '지금의 교육제도는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고, 초<중<고로 올라가면서 '그렇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6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립주체별로는 사립학교 학생의 77.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공립학교 학생의 47.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응답률이다.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험이 교육제도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라고 답한 학생의 경우 56.3%의 학생이 지금의 교육제도가 부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53>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570 (19.8%)	812 (28.2%)	754 (26.2%)	744 (25.8%)	2921 (100%)
학교	초등	12 (4.2%)	43 (14.9%)	74 (25.7%)	159 (55.2%)	290 (100%)
	중학교	135 (13.8%)	240 (24.6%)	293 (30.0%)	309 (31.6%)	985 (100%)
	인문고	263 (27.1%)	328 (33.8%)	225 (23.2%)	154 (15.9%)	976 (100%)
	특성화고	144 (26.1%)	173 (31.4%)	140 (25.4%)	94 (17.1%)	551 (100%)
	특목고	14 (18.2%)	24 (31.2%)	17 (22.1%)	22 (28.6%)	77 (100%)
경제수준	상	27 (26.7%)	13 (12.9%)	20 (19.8%)	41 (40.6%)	101 (100%)
	중상	95 (19.3%)	114 (23.1%)	126 (25.6%)	158 (32.0%)	496 (100%)
	중	304 (18.6%)	481 (29.5%)	444 (27.2%)	404 (24.7%)	1641 (100%)
	중하	104 (21.1%)	156 (31.6%)	128 (25.9%)	106 (21.5%)	495 (100%)
	하	37 (30.6%)	38 (31.4%)	25 (20.7%)	21 (17.4%)	123 (100%)
학업성적	상	49 (21.7%)	58 (25.7%)	51 (22.6%)	68 (30.1%)	227 (100%)
	중상	100 (15.7%)	172 (27.1%)	171 (26.9%)	192 (30.2%)	638 (100%)
	중	166 (16.6%)	291 (29.0%)	284 (28.3%)	261 (26.0%)	1007 (100%)
	중하	163 (23.6%)	193 (27.9%)	185 (26.7%)	151 (21.8%)	697 (100%)
	하	89 (32.0%)	83 (29.9%)	51 (18.3%)	55 (19.8%)	280 (100%)

- 초<중<고로 올라가면서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졌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낮아질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고민이나 약점을 털어놓을 학교 선생님이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93 (13.7%)	630 (21.9%)	885 (30.8%)	967 (33.6%)	2921 (100%)
학교	초등	64 (22.3%)	63 (22.0%)	72 (25.1%)	88 (30.7%)	290 (100%)
	중학교	154 (15.8%)	234 (24.0%)	285 (29.3%)	301 (30.9%)	985 (100%)
	인문고	78 (8.0%)	213 (22.0%)	320 (33.0%)	358 (36.9%)	976 (100%)
	특성화고	72 (13.1%)	99 (18.0%)	185 (33.6%)	195 (35.4%)	551 (100%)
	특목고	22 (28.6%)	18 (23.4%)	19 (24.7%)	18 (23.4%)	77 (100%)

- '고민이나 약점을 털어놓을 학교 선생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5.6%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인문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70%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데 반해 믿고 마음을 털어놓을 교사는 더 줄어드는 것이다.

<표 55> “학교는 성적 외에 학생이 가진 다양한 고민(가족문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부담 대우, 친구관계, 정체성 등)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 노력하는 곳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339 (11.8%)	838 (29.2%)	1038 (36.1%)	658 (22.9%)	2921 (100%)
학교	초등	74 (26.1%)	90 (31.7%)	77 (27.1%)	43 (15.1%)	290 (100%)
	중학교	155 (15.8%)	315 (32.2%)	322 (32.9%)	186 (19.0%)	985 (100%)
	인문고	53 (5.5%)	250 (25.8%)	378 (39.0%)	287 (29.6%)	976 (100%)
	특 성 화 고	43 (7.8%)	149 (27.1%)	232 (42.2%)	126 (22.9%)	551 (100%)
	특목고	12 (15.6%)	28 (36.4%)	24 (31.2%)	13 (16.9%)	77 (100%)
경제수준	상	30 (29.7%)	27 (26.7%)	21 (20.8%)	23 (22.8%)	101 (100%)
	중상	71 (14.4%)	143 (29.0%)	149 (30.2%)	130 (26.4%)	496 (100%)
	중	161 (9.9%)	478 (29.4%)	637 (39.1%)	352 (21.6%)	1641 (100%)
	중하	57 (11.6%)	146 (29.6%)	182 (36.9%)	108 (21.9%)	495 (100%)
	하	18 (14.9%)	34 (28.1%)	34 (28.1%)	35 (28.9%)	123 (100%)

- '학교가 성적 외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로 올라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6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수준이 '상'인 학생들만이 56.4%가 그렇다고 답해 절반을 넘어섰고 나머지는 절반 이하를 밑돌았다. 특히 경제수준이 '하'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7%에 달해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이나 가족의 고통 등 학생의 절박한 상황에 학교가 응답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1160 (40.5%)	1021 (35.7%)	473 (16.5%)	207 (7.2%)	2921 (100%)
학교	초등	124 (43.8%)	105 (37.1%)	35 (12.4%)	19 (6.7%)	290 (100%)
	중학교	338 (34.8%)	361 (37.2%)	190 (19.6%)	82 (8.4%)	985 (100%)
	인문고	407 (42.1%)	355 (36.7%)	147 (15.2%)	57 (5.9%)	976 (100%)
	특성화고	247 (45.0%)	169 (30.8%)	92 (16.8%)	41 (7.5%)	551 (100%)
	특목고	42 (54.5%)	24 (31.2%)	6 (7.8%)	5 (6.5%)	77 (100%)
설립별	국공립	947 (38.7%)	880 (35.9%)	431 (17.6%)	190 (7.8%)	2500 (100%)
	사립	213 (51.6%)	141 (34.1%)	42 (10.2%)	17 (4.1%)	421 (100%)

-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문장에 대해 76.2%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다르게, 학생들 가운데 3명 중 2명은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교사를 존중하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전체		1226 (43.1%)	963 (33.9%)	437 (15.4%)	218 (7.7%)	2921 (100%)
학교	초등	103 (36.9%)	76 (27.2%)	54 (19.4%)	46 (16.5%)	290 (100%)
	중학교	375 (38.9%)	334 (34.7%)	166 (17.2%)	88 (9.1%)	985 (100%)
	인문고	417 (43.3%)	366 (38.0%)	133 (13.8%)	46 (4.8%)	976 (100%)
	특성화고	289 (52.5%)	160 (29.1%)	73 (13.3%)	28 (5.1%)	551 (100%)
	특목고	41 (54.7%)	21 (28.0%)	8 (10.7%)	5 (6.7%)	77 (100%)

설립별	국공립	998 (41.0%)	833 (34.2%)	401 (16.5%)	204 (8.4%)	2500 (100%)
	사립	228 (55.9%)	130 (31.9%)	36 (8.8%)	14 (3.4%)	421 (100%)

-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77%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학생인권이 매우 신장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 학생들의 인권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표 58>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3가지 선택 중복응답)		
전체응답수 합계	7050(100%)	응답자수(2693명) 대비 비율
어려운 교과 공부	1489 (21.1%)	55.3%
재미없는 수업	1612 (22.9%)	59.9%
선생님의 무관심	186 (2.6%)	6.9%
생활지도나 교칙에 대한 불만	827 (11.7%)	30.7%
학교나 선생님의 차별 대우	364 (5.2%)	13.5%
왕따 등 학교폭력	186 (2.6%)	6.9%
부모님, 선생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1139 (16.2%)	42.3%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 취미생활을 못하는 것	1075 (15.2%)	39.9%
어려운 집안형편 등 가족문제	172 (2.4%)	6.4%

-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3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재미없는 수업 → △어려운 교과 공부 → △부모님, 선생님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 → △하고 싶은 공부나 취미 활동을 하지 못한 것 → △생활지도나 교칙에 대한 불만 등의 순으로 꼽았다. 특성화고의 경우, 생활지도나 교칙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성적에 대한 압박, 생활지도나 교칙에 대한 불만, 학교의 차별대우를 꼽은 학생 수에 비해 '왕따 등 학교폭력'을 꼽은 학생 수는 현저하게 적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른 호소는 외면한 채 학교폭력에만 정부 정책이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표 59>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학교급별 비교

			어려운 교과 공부	재미없 는 수업	선생님 의 무관심	생활지 도나 교칙에 대한 불만	학교나 선생님 의 차별 대우	왕따 등 학교폭 력	부모님, 선생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 취미생 활을 못하는 것	어려운 집안형 편 등 가족문 제
전체			1489 (55.3%)	1612 (59.9%)	186 (6.9%)	827 (30.7%)	364 (13.5%)	186 (6.9%)	1139 (42.3%)	1075 (39.9%)	172 (6.4%)
학교	초등	응답자수 217명	123 (56.7%)	95 (43.8%)	11 (5.1%)	41 (18.9%)	12 (5.5%)	39 (18.0%)	91 (41.9%)	79 (36.4%)	9 (4.1%)
		응답수 500건	123 (24.6%)	95 (19.0%)	11 (2.2%)	41 (8.2%)	12 (2.4%)	39 (7.8%)	91 (18.2%)	79 (15.8%)	9 (1.8%)
	중학교	응답자수 915명	567 (62.0%)	609 (66.6%)	60 (6.6%)	238 (26.0%)	112 (12.2%)	83 (9.1%)	374 (40.9%)	297 (32.5%)	40 (4.4%)
		응답수 2380건	567 (23.8%)	609 (25.6%)	60 (2.5%)	238 (10.0%)	112 (4.7%)	83 (3.5%)	374 (15.7%)	297 (12.5%)	40 (1.7%)
	인문고	응답자수 947명	531 (56.1%)	518 (54.7%)	66 (7.0%)	260 (27.5%)	123 (13.0%)	37 (3.9%)	492 (52.0%)	445 (47.0%)	63 (6.7%)
		응답수 2535건	531 (20.9%)	518 (20.4%)	66 (2.6%)	260 (10.3%)	123 (4.9%)	37 (1.5%)	492 (19.4%)	445 (17.6%)	63 (2.5%)
	특성화고	응답자수 535명	227 (42.4%)	360 (67.3%)	46 (8.6%)	265 (49.5%)	106 (19.8%)	21 (3.9%)	138 (25.8%)	209 (39.1%)	57 (10.7%)
		응답수 1429건	227 (15.9%)	360 (25.2%)	46 (3.2%)	265 (18.5%)	106 (7.4%)	21 (1.5%)	138 (9.7%)	209 (14.6%)	57 (4.0%)
	특목고	응답자수 71명	37 (52.1%)	23 (32.4%)	2 (2.8%)	22 (31.0%)	10 (14.1%)	6 (8.5%)	43 (60.6%)	44 (62.0%)	3 (4.2%)
		응답수 190건	37 (19.5%)	23 (12.1%)	2 (1.1%)	22 (11.6%)	10 (5.3%)	6 (3.2%)	43 (22.6%)	44 (23.2%)	3 (1.6%)

3.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이 학생인권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조례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방법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생인권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혁신학교의 경우 학교별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 생활지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는 학교의 새로운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청의 뒷받침이 학생인권에 실질적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비교 결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이나, 전북의 경우 시행시기가 짧아(2013년 7월 제정, 시행 시작) 미시행 지역으로 분류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명분으로 삼은 교육청의 책무 방기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주민발의로 조례로 제정되었고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도 높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의 시행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 지역으로 조사에 참여한 혁신학교도 경기, 광주,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조례 시행 지역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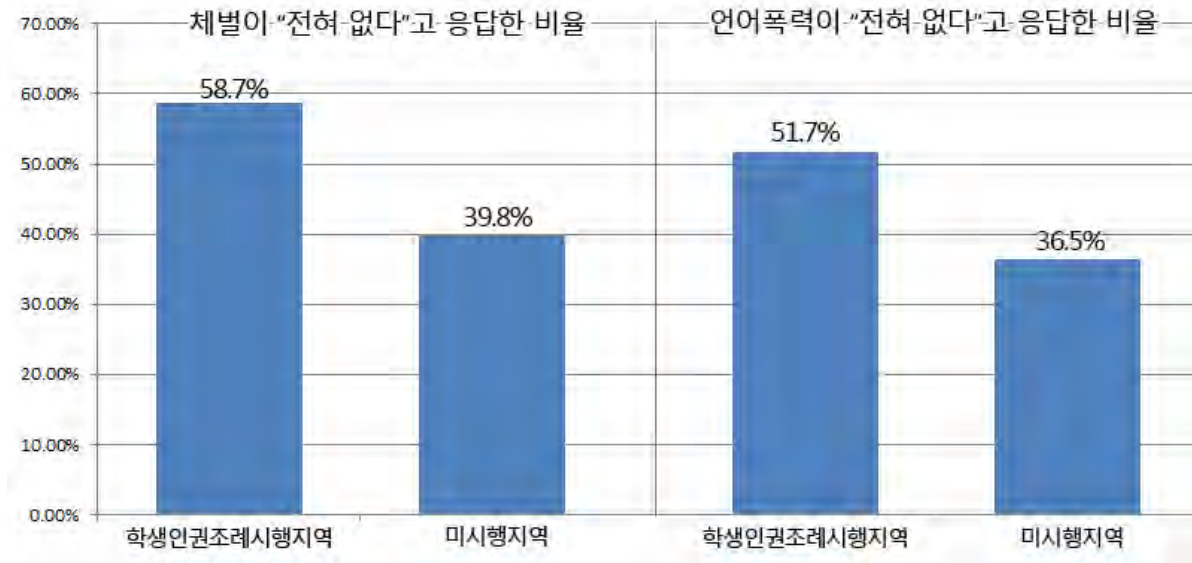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체벌·언어폭력 발생률 차이

<표 60>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체벌/언어폭력 경험의 차이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시행지역 (광주, 경기, 서울)	29 (2.6%)	120 (10.9%)	304 (27.7%)	643 (58.7%)	1096 (100.0%)
미시행지역	150 (8.4%)	373 (20.8%)	557 (31.0%)	714 (39.8%)	1794 (100.0%)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시행지역 (광주, 경기, 서울)	53 (4.8%)	170 (15.5%)	305 (27.9%)	566 (51.7%)	1094 (100.0%)
미시행지역	184 (10.3%)	423 (23.6%)	530 (29.6%)	653 (36.5%)	1790 (100.0%)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체벌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39.8%인 데 반해,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58.7%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6.5%인 데 반해,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51.7%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체벌, 언어폭력 존재에서 학생인권조례시행에 따른 차이



<그림 12>

<표 61>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체벌/언어폭력 당하는 빈도 차이						
	거의 매일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2번	아주 가끔	합계
학생인권조례시행지역	62 (8.0%)	99 (12.8%)	57 (7.4%)	83 (10.8%)	471 (61.0%)	772 (100%)
미시행지역	254 (17.1%)	326 (22.0%)	159 (10.7%)	139 (9.4%)	607 (40.9%)	1485 (100%)

<표 62>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체벌/언어폭력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의 차이				
	학교	학원	집	합계
학생인권조례시행지역	361 (54.4%)	155 (23.4%)	147 (22.2%)	663 (100.0%)
미시행지역	1050 (79.1%)	140 (10.6%)	137 (10.3%)	1327 (100.0%)

-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일어나는 횟수에서도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어난다고 답한 학생이 28.2%인 데 반해, 미시행 지역에서는 49.8%에 달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도 조례 시행 지역의 경우는 미시행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보다 학원과 집을 답한 경우가 많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체벌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조차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서둘러 시정되어야 할 일이지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체벌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표 63>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체벌/언어폭력 빈발 장소의 차이					
		학교	학원	집	합계
혁신 학교	일반학교	1327 (74.9%)	228 12.9%	217 12.2%	2473 (100%)
	혁신학교	87 (38.5%)	70 31.0%	69 30.5%	448 (100%)

-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일반학교 학생들은 74.9%가 학교를 꼽은 반면, 혁신학교의 학생들은 38.5%만이 학교를 꼽아 혁신학교에서는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두발·복장규제 발생률 차이

<표 64>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두발복장규제의 차이					
원하는 머리스타일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225 (20.5%)	185 (16.9%)	215 (19.6%)	470 (42.9%)	1095 (100%)
미시행지역	724 (40.4%)	408 (22.7%)	304 (16.9%)	358 (20.0%)	1794 (100%)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223 20.4%	198 18.1%	235 21.5%	438 40.0%	1094 (100%)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685 38.2%	418 23.3%	289 16.1%	403 22.5%	1795 (100%)

- 두발규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42.9%인 데 반해, 조례 미시행 지역에서는 20.0%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복장규제의 경우에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40.0%인 데 반해, 조례 미시행 지역에서는 22.5%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3) 과도한 벌점과 징계 경험

<표 65>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벌점이나 벌이 과한 경우의 빈도 차이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66 (6.1%)	113 (10.4%)	295 (27.1%)	614 (56.4%)	1088 (100.0%)
미시행 지역	263 (14.8%)	338 (19.0%)	550 (30.9%)	630 (35.4%)	1781 (100.0%)

<표 66>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의 빈도 차이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61 (5.6%)	122 (11.2%)	317 (29.1%)	591 (54.2%)	1091 (100.0%)
미시행 지역	250 (13.9%)	308 (17.2%)	541 (30.2%)	694 (38.7%)	1793 (100.0%)

- 잘못에 비해 과도한 벌점이나 벌을 받은 경험률과 변호권 미보장 경험률은 조례 시행지역에서는 각각 16.5%와 16.8%인 반면, 미시행 지역에서는 각각 33.8%와 31.1%로 나타나 이 역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4) 학생 자치권 보장의 차이

<표 67> 조례시행/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생 의견 적극 수렴 차이					
교칙, 급식, 학교행사, 재량휴업일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170 (15.5%)	360 (32.8%)	385 (35.1%)	183 (16.7%)	1098 (100%)
미시행 지역	162 (9.0%)	512 (28.5%)	661 (36.8%)	459 (25.6%)	1794 (100%)
일반학교	235 (9.5%)	701 (28.4%)	927 (37.6%)	602 (24.4%)	2473 (100%)
혁신학교	98 (22.0%)	178 (39.9%)	128 (28.7%)	42 (9.4%)	448 (100%)

-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정도에 대해 조례 시행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8.3%가 그렇다고 다한 반면, 미시행 지역에서는 37.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혁신학교는 61.9%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일반학교는 37.9%에 불과했다. 조례 시행 지역이 미시행 지역보다,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68>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교사 의견 반영 차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보다 교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교사의 의견대로 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165 (15.0%)	406 (36.9%)	371 (33.8%)	151 (13.7%)	1099 (100%)
미시행 지역	406 (22.6%)	700 (38.9%)	513 (28.5%)	166 (9.2%)	1799 (100%)

- 학칙 개정시 학생이 아닌 교사의 의견대로 된다고 답한 비율은 조례 시행 지역은 51.9%, 미시행 지역은 61.5%가 그렇다고 답했다.

<표 69>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의 차이					
학생회, 동아리 등은 학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311 (28.3%)	352 (32.0%)	271 (24.7%)	153 (13.9%)	1099 (100%)
미시행 지역	333 (18.5%)	585 (32.5%)	520 (28.9%)	348 (19.3%)	1799 (100%)

- 학생회, 동아리 활동이 자유롭다에 대해 조례 시행지역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28.3%가, 미시행 지역에서는 18.5%로 나타났다.

<표 70>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학생회에 대한 생각의 차이					
학생회가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는지 검사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96 (8.7%)	275 (25.0%)	434 (39.5%)	287 (26.1%)	1099 (100%)
미시행지역	240 (13.3%)	487 (27.1%)	665 (37.0%)	392 (21.8%)	1799 (100%)
학생회(어린이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하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칭찬과 상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일하는 곳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111 (10.1%)	294 (26.8%)	412 (37.5%)	276 (25.1%)	1099 (100%)
미시행지역	240 (13.3%)	487 (27.1%)	665 (37.0%)	392 (21.8%)	1799 (100%)

- 반면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의 격차가 별반 없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도 아직까지 학생 자치권의 신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5) 강제 수업과 소지품 검사 경험률 차이

<표 71>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강제수업 경험 차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73 (6.6%)	78 (7.1%)	237 (21.6%)	710 (64.7%)	1098 (100.0%)
미시행 지역	488 (27.2%)	348 (19.4%)	373 (20.8%)	584 (32.6%)	1793 (100.0%)

- 야간 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외 수업의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지역은 13.7%가, 미시행 지역은 46.6%가 그렇다고 답해 3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2>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소지품 압수 등의 경험 차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져가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조례 시행 지역	156 (14.2%)	154 (14.0%)	260 (23.7%)	528 (48.1%)	1098 (100.0%)
미시행 지역	565 (31.4%)	259 (14.4%)	359 (20.0%)	615 (34.2%)	1798 (100.0%)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조례시행지역	41 (3.7%)	123 (11.2%)	296 (27.0%)	636 (58.0%)	1096 (100.0%)
미시행지역	186 (10.4%)	345 (19.2%)	546 (30.4%)	717 (40.0%)	1794 (100.0%)

- 휴대폰 등의 소지 금지와 압수 경험에서도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28.2%가, 미시행 지역에서는 45.8%가 있다고 답했고,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도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14.9%, 미시행 지역에서는 29.6%로 2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가 학생의 사생활의 권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73>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소지품검사 경험률 차이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일반학교	253 (10.3%)	380 (15.4%)	638 (25.9%)	1194 (48.4%)	2473 (100%)
혁신학교	2 (0.4%)	15 (3.4%)	85 (19.1%)	344 (77.1%)	448 (100%)

- 소지품 검사에 대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교는 25.7%가, 혁신학교는 3.8%가 있다고 답해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에서 학생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적에 따른 우대의 차이

<표 74>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성적 우수자 우대					
공부 잘하는 학생만 특별히 잘해주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일반학교	355 (14.4%)	890 (36.1%)	734 (29.7%)	489 (19.8%)	2473 (100%)
혁신학교	19 (4.3%)	107 (23.9%)	170 (38.0%)	151 (33.8%)	448 (100%)

- 공부 잘하는 학생을 우대하는지에 대해 조례 시행 여부보다 혁신학교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학교에서는 50.5%가 있다고 답한 반면, 혁신학교에서는 28.2%가 있다고 답했다.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업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혁신학교의 지향이 학생들의 반응차를 낳았다고 보인다.

7)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의 차이

<표 75>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						
위와 같은 일(인권침해)이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	부모님과 상의한다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 홈페이지 등에 건의한다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못본 척 한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331 (31.0%)	301 (28.2%)	38 (3.6%)	53 (5.0%)	344 (32.2%)	1067 (100%)
미시행 지역	370 (20.8%)	441 (24.8%)	62 (3.5%)	107 (6.0%)	799 (44.9%)	1779 (100%)
일반학교	542 (22.2%)	623 (25.6%)	82 (3.4%)	142 (5.8%)	1047 (43.0%)	2473 (100%)
혁신학교	167 (38.8%)	123 (28.6%)	18 (4.2%)	19 (4.4%)	103 (24.0%)	448 (100%)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는 비율이 31.0%로 미시행지역보다 높고, 혁신학교의 경우에도 38.8%로 일반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체념한다고 답한 비율은 조례 시행 지역은 32.2%, 미시행 지역은 44.9%로 차이를 보였고,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학교는 43.0%인 반면 혁신학교의 경우는 24.0%에 불과했다. 조례가 시행된 지역일수록, 혁신학교일수록 학생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6> 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인권옹호기관에 대한 인지도 차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110 (10.2%)	397 (36.7%)	341 (31.5%)	233 (21.6%)	1081 (100%)
미시행지역	131 (7.4%)	549 (30.8%)	630 (35.4%)	470 (26.4%)	1780 (100%)

<표 77> 조례 시행/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교 인권교육 경험 차이					
학생인권의 뜻과 내용 그리고 학생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학교 밖에서 따로 공부했다	합계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364 (33.8%)	253 (23.5%)	436 (40.4%)	25 (2.3%)	1078 (100%)
미시행지역	310 (17.4%)	668 (37.6%)	758 (42.7%)	41 (2.3%)	1777 (100%)
일반학교	498 (20.4%)	858 (35.1%)	1023 (41.9%)	62 (2.5%)	2473 (100%)
혁신학교	181 (41.7%)	65 (15.0%)	182 (41.9%)	6 (1.4%)	4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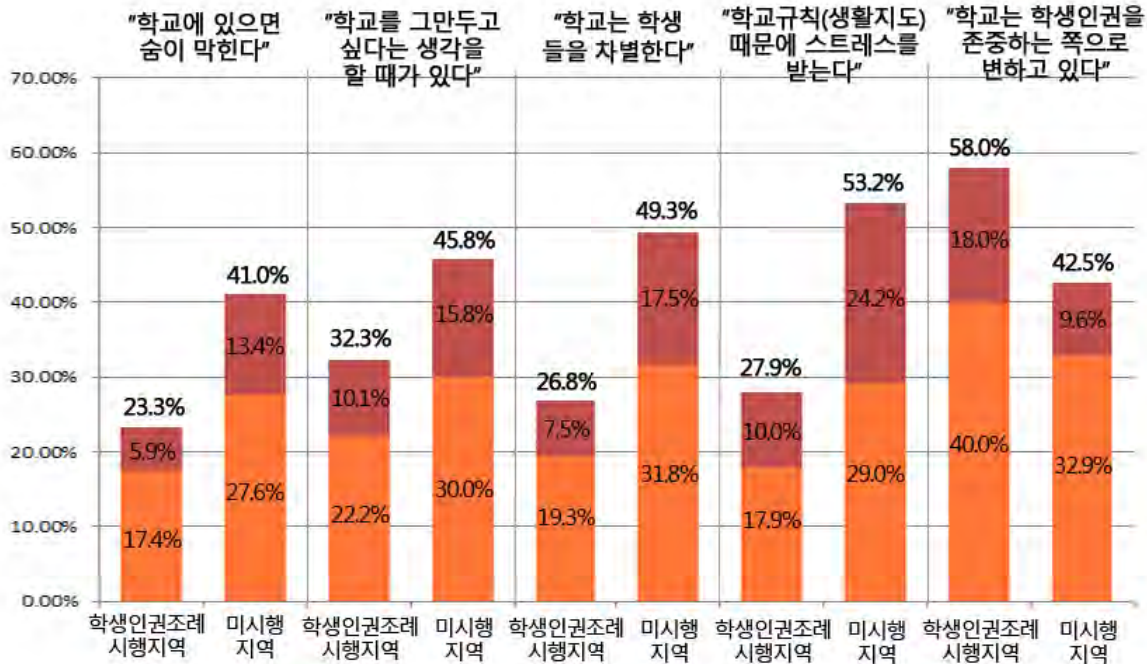
- 인권옹호기관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이 46.9%인 데 반해, 미시행 지역은 38.2%였다. 인권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33.8%의 학생들이, 혁신학교에서는 41.7%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미시행 지역과 일반학교에 비해 높았다. 다만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조례 시행 여부나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는데,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써야 함을 보여준다.

8) 학교 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

<표 78> 학생인권조례 시행/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교에 대한 생각 차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64 (5.9%)	190 (17.4%)	373 (34.1%)	466 (42.6%)	1093 (100%)
	미시행 지역	239 (13.4%)	491 (27.6%)	549 (30.8%)	502 (28.2%)	1781 (100%)
	일반학교	292 (11.9%)	628 (25.7%)	781 (31.9%)	744 (30.4%)	2445 (100%)
	혁신학교	11 (2.5%)	56 (12.7%)	144 (32.7%)	229 (52.0%)	440 (100%)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111 (10.1%)	244 (22.2%)	308 (28.1%)	434 (39.6%)	1097 (100%)
	미시행 지역	282 (15.8%)	535 (30.0%)	484 (27.1%)	484 (27.1%)	1785 (100%)
	일반학교	368 (15.0%)	691 (28.2%)	677 (27.6%)	716 (29.2%)	2452 (100%)
	혁신학교	26 (5.9%)	91 (20.6%)	118 (26.7%)	207 (46.8%)	442 (100%)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한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82 (7.5%)	212 (19.3%)	376 (34.3%)	426 (38.9%)	1096 (100%)
	미시행 지역	311 (17.5%)	566 (31.8%)	508 (28.5%)	397 (22.3%)	1782 (100%)
	일반학교	382 (15.6%)	729 (29.8%)	740 (30.2%)	596 (24.4%)	2447 (100%)
	혁신학교	12 (2.7%)	50 (11.3%)	149 (33.7%)	231 (52.3%)	442 (100%)
학교 규칙(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110 (10.0%)	196 (17.9%)	348 (31.8%)	442 (40.3%)	1096 (100%)
	미시행 지역	430 (24.2%)	517 (29.0%)	466 (26.2%)	367 (20.6%)	1780 (100%)
	일반학교	524 (21.4%)	676 (27.6%)	679 (27.8%)	567 (23.2%)	2446 (100%)
	혁신학교	18 (4.1%)	40 (9.0%)	138 (31.2%)	246 (55.7%)	442 (100%)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197 (18.0%)	438 (40.0%)	308 (28.2%)	151 (13.8%)	1094 (100%)
	미시행 지역	171 (9.6%)	585 (32.9%)	685 (38.5%)	336 (18.9%)	1777 (100%)
	일반학교	254 (10.4%)	832 (34.1%)	910 (37.3%)	444 (18.2%)	2440 (100%)
	혁신학교	116 (26.2%)	194 (43.9%)	88 (19.9%)	44 (10.0%)	442 (100%)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차이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그림 13>

- 조례의 시행 여부와 혁신학교 여부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질문에 대해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은 23.3%가 그렇다고 대답한 데 반해, 미시행 지역에서는 4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혁신학교에서는 15.2%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는 37.6%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해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32.3%, 미시행 지역에서는 45.8%로 나타났고, 같은 질문에 혁신학교에서는 14.0%, 일반학교에서는 45.4%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여 학생들이 학교에 좀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 '학교는 학생을 차별한다'에 대해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26.8%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미시행 지역에서는 49.3%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일반학교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5.4%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혁신학교에서는 14.0%의 학생만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가 차별 시정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 '학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27.9%, 미시행 지역에서는 53.4%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일반학교에서는 49.0%의 학생이, 혁신학교에서는 13.1%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정책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인권이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은 58.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미시행 지역에서는 42.5%에 머물렀다. 같은 질문에 대해 혁신학교는 70.1%의 학생이, 일반학교는 44.5%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조례 시행 여부보다는 혁신학교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 조사 결과의 시사점

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학생을 찍어누르고 내모는 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만드는 학교, '부당함/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학습시키는 학교. 2013년에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학교의 음울한 자화상이다. 동시에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인권 보장 노력이 학생의 삶의 질을 가르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은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의 재편이 더욱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인권을 누리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법의 개정 또는 학생인권법의 독자적 제정이 시급하다.

인권침해를 상대적으로 더 자주 경험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학생, 학교생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수준과 성적이 낮은 학생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역시 시급하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고통과 절망,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인권.교육.청소년단체들이 내놓은 인권정책들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게 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여러분의 인권이 지켜지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드는 데 쓰고자 합니다. 응답은 철저히 비밀로 처리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3.8.19.~8.31 문의:02)2670-9300

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옆 칸에 표시해주세요.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1) 공부 잘하는 학생만 특별히 잘해주기	① ② ③ ④
2) 외모, 여성/남성을 이유로 한 놀림이나 차별 (예)여자/남자 같다, 여자답지/남자답지못하다 등)	① ② ③ ④
3) 장애인이라고 또는 장애인 같이라며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차별 행위	① ② ③ ④
4) 동성애자 등 성(性)소수자를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차별 행위	① ② ③ ④
5)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체벌	① ② ③ ④
6)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7)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성희롱·성폭력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① ② ③ ④
8) 학생들 사이의 폭력과 따돌림	① ② ③ ④
9)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성폭력	① ② ③ ④
10) 선배가 후배들에게 강제로 인사나 선물을 하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11) 원하는 머리스타일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① ② ③ ④
12)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	① ② ③ ④
13)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14) 공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 시험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15) 원하지 않는 과목의 공부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16) 원하지 않는 학교행사, 봉사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17) 소지품 검사	① ② ③ ④
18) 휴대폰,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져가는 것	① ② ③ ④
19)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0) 성적(점수나 등수) 공개	① ② ③ ④
21) 부모의 직업, 한부모가정, 경제 형편 등 가정형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차별하는 것	① ② ③ ④
22) 종교활동이나 종교교육을 강제로 하는 것	① ② ③ ④
23) 학생들이 하는 모임이나 설문조사, 의견 표시를 못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것 (서명 운동, 집회 등)	① ② ③ ④
24) 급식, 매점, 휴게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복지)에 대한 불만족	① ② ③ ④
25) 질이 낮고 맛 없는 급식	① ② ③ ④
26) 별점이나 별을 잘못된 것보다 지나치게 주는 것	① ② ③ ④
27) 징계 시 학생의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학생에게 벌을 줄 때 이유를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8) 학급회, 학생회(어린이회) 출마하는 것에 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성적, 출결상황, 징계, 벌 등 조건을 달아 출마를 막는 것)	① ② ③ ④
29)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 규칙을 고치는 경우	① ② ③ ④
30) 친구(이상친구 포함)관계에 대해 간섭하고 못사귀게 하는 것	① ② ③ ④

1-1. 위와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 ①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 ② 부모님과 상의한다
 ③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 홈페이지 등에 건의한다
 ④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못본 척 한다

1-2. 위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3. 학생인권의 뜻과 내용 그리고 학생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아본 적 있다 ② 받아본 적 없다
 ③ 기억이 안 난다 ④ 학교 밖에서 따로 공부했다

2. 다음은 **학생 자치권**(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를 표시해주세요.

해당하는 번호를 옆 칸에 표시해주세요.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칙, 급식, 학교행사, 재량휴업일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2) 교칙, 급식, 학교행사, 재량휴업일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대로 된다)	① ② ③ ④
3) 학급규정, 학교생활규정 등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보다 교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교사의 의견대로 된다)	① ② ③ ④
4) 학급규정, 학교생활규정 등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학부모의 의견대로 된다)	① ② ③ ④
5) 학급회의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6) 대의원회(어린이회) 회의가 자주 열리고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7) 학생회, 동아리 등은 학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8)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이 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학생회(어린이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하기보다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칭찬과 상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일하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10) 학생회가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는지 검사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학생들의 의견대로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12) 방송반, 학교 신문 등 학생 언론 활동이 자유롭다(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두발규제(머리 모양에 대해 간섭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해당하는 번호를 옆 칸에 표시해주세요.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머리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규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두발규제가 강화되면(머리모양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면) 나의 성적이 올라간다	① ② ③ ④
4) 두발 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 모양을 똑같이 정하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휴대폰 등의 소지품 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해당하는 번호를 옆 칸에 표시해주세요.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휴대폰을 등교할 때 일괄적으로 건어서 하교할 때 돌려준다	① ② ③ ④
3)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5) 흥기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소지품검사를 학생의 허락없이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과 언어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체벌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있는 대로 고르세요)	①손이나 발을 이용한 체벌 ②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 ③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④단체기합 ⑤기타()
2)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당하거나 목격한 언어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있는 대로 고르세요)	①욕설 ②위협 ③부모님 욕하기 ④신체특성, 외모 등을 놀림 ⑤저주나 증오심이 담긴 말 ⑥기타()
3) 학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집니까?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2번 이상 ③일주일에 1번 ④한 달에 1~2번 ⑤아주 가끔
4) 다음 중 어른들의 체벌/언어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학교 ②학원 ③집

6. 여러분의 학교에는 벌점제가 있습니까?

- ① 예 ②아니오 (☞ 아니오 라고 답했다면 8번으로 가세요)

6-1. 벌점이 쌓이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모두 고르세요)

- ① 기합이나 체벌 ②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
③ 벌을 결정하는 교사회의가 열림(학생선도위원회)
④ 벌을 결정하는 학생회의가 열림(학생자치법정)
⑤ 보호자 상담 ⑥기타()

6-2. 벌점이 쌓여 벌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벌을 받고 나면 벌점이 없어진다
② 벌을 받고 나면 벌점이 없어지지만 다시 벌점이 쌓이면 이전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다
③ 벌을 받아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쌓인다
④ 기타 ()

7. 벌점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 대신 체벌이 줄어든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3) 벌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4) 벌을 받는 학생이 늘어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5)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6) 벌을 주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7) 벌점을 없애려고 일부러 착한 일을 하거나 친구를 신고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8) 벌점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9) 벌점을 받으면 내 행동을 반성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8. 학생들이 **체벌이나 언어폭력, 벌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수업태도 불량 ② 숙제나 준비물을 안가져와서
 ③ 지각이나 결석 ④ 두발·복장규정 위반
 ⑤ 뛰어놀거나 장난을 쳐서 ⑥ 성적이 낮아서
 ⑦ 학생간 다툼, 폭력 ⑧ 음주나 흡연
 ⑨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소지 ⑩ 버릇없이 군다고
 ⑪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교사 지도 불응)
 ⑫ 학교에 대한 저항(학교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행동)
 ⑬ 별다른 이유없이 ⑭ 기타()

※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다음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자기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를 옆 칸에 표시해주세요.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① ② ③ ④
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 규칙(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6)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는 공정하게(한쪽편을 들지 않고 바르게) 해결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7)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학교공부는 나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9) 집의 경제형편이 좋은 학생이 학교 성적도 좋다	① ② ③ ④
10) 학교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11) 지금의 교육제도는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12)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고민이나 약점을 털어놓을 학교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학교는 성적 외에 다양한 고민(가족문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부당 대우, 친구관계, 정체성 등) 학생이 가진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 노력하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15)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16)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현재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가장 힘든 점 3가지만 고르세요)

- ① 어려운 교과 공부 ② 재미없는 수업
 ③ 선생님의 무관심 ④ 생활지도나 교칙에 대한 불만
 ⑤ 학교나 선생님의 차별 대우 ⑥ 왕따 등 학교폭력
 ⑦ 부모님,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⑧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 취미생활을 못하는 것
 ⑨ 어려운 집안형편 등 가족문제 ⑩ 기타()

※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성별	①여자 ②남자 ③()
다니는 학교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인문고 ④특성화고(전문계고) ⑤특목고
가정의 경제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자신의 학업성적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사는 곳	①서울 ②인천 ③경기 ④대전/충청권 ⑤광주 ⑥호남권 ⑦대구/경북권 ⑧부산울산경남권 ⑨강원도 ⑩제주

“변화를 거부하는 학교, 내몰리는 학생들! 2013, 학생인권은 여전히 목마르다!”

〈전국 학생인권 · 생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펴낸 날 2013년 10월1일

펴낸 곳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 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메일: h33388@gmail.com | 전화: 02)365-5412
